

한인뉴스

11

2012 VOL.197

haninnewsinni@gmail.com



samick 



첫 음감이 평생을 갑니다

자녀의 평생음감을 좌우하는 첫 피아노,
그동안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이제, 피아노 선택은 정확한 음감으로 하십시오.
가장 정확한 음감으로 많은 전문가에게
사랑받는 정통 독일형 삼익피아노
첫 음감이 평생을 갑니다.

— the First Piano —
SAMICK



남다른 생각의 스케일로 대한민국의 영역을 넓히고 개신 당신을 위해
대한항공도 생각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서비스의 생각, 네트워크의 생각,
편안함에 대한 생각 - 당신의 기대까지도 뛰어넘는 서비스로 더 크게 모시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합니다

대한항공 자카르타 지점 : 021-521-2180

PRIME NUSANTARA TOUR SERVICE

E-mail : michelle.lee@primef.co.id



프라임 투어의 한국패키지 브랜드 명칭
'좋아하다'라는 뜻의 인도네시아어 SUKA를
멋지고 잊을 수 없고 진절하며 굉장한 한국이라고 풀이함.

가루다 오리엔트 홀리데이가 프라임 투어로 거듭 납니다.

인도네시아인을 위한 한국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가루다 오리엔트 홀리데이가 <프라임 투어>로 상호를 변경 하고
더욱 적극적인 여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가장 고급스럽고 세심하게 전파합니다.

- ▶ 문화유산 패키지: 유형 및 무형 문화재 중심 패키지
- ▶ 한류 패키지: 열정적인 공연물 중심 패키지
- ▶ 의료 패키지: 발달된 의료상품 중심 패키지
- ▶ 쇼핑 패키지: 면세점부터 시장까지 쇼핑 중심 패키지
- ▶ 기업 패키지: 기업의 요청에 따른 인센티브 및 행사 중심 패키지



프라임 투어 서비스

- ▶ 인도네시아 여행 서비스
- ▶ 주요 지역 호텔 및 차량 예약
- ▶ 기업 및 단체 컨퍼런스 개최
- ▶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권
- ▶ 교민을 위한 가족초청 프로그램
(자카르타 친지방문과 유명여행지를 결합한 여행)
- ▶ Garuda항공 에어텔 예약
 - ~ 자카르타 출장고객
 - ~ 인도네시아 여행객.
 - ~ 인도네시아경유 호주여행 고객



재인도네시아한인회

2012 한인회 송년의 밤 행사 안내

다사다난 했던 2012년 한 해가 어느새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올해를 뜻 깊게 마무리 하는 시간 속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만남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모시고 송년축제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 일 시 : 2012년 12월 13일, 목요일, 오후 6시

☆ 장 소 : 발라이 가르띠니(BALAI KARTINI)

☆ 참가비 : Rp. 20만/1인

☆ 참석대상 : 전 교민

☆ 입장권 판매처 :

한인회, 무궁화본지점(자카르타, 땅그랑, 찌까랑, 끌라빠가딩), 뉴서울슈퍼, K-MART

☆ 입장권 판매일시 : 11월 13일 ~ 11월 30일(선착순 1,000명)

☆ 행사내용 : 1부 - 뷔페 저녁식사(오후 6:00~7:00)

2부 - 연말 공식행사(오후 7:00 ~)

3부 - 공연, 행운권 추첨 <사회자: 이봉원 코미디언>

<초청가수: 김상배, 강민주>

※ 행운권 추첨 : 푸짐한 경품이 행운의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한인사회가 참여하는 뜻 깊은 행사에 동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의 찬조를 하시고자 하는 업체 및 동포 여러분께서는 12월 2일까지
한인회 사무국으로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문의처 : 한인회 사무국

Tel (021)521-2515, 527-7539,

Fax (021)521-2486, 5296-0586



아름다운 공동체
인도네시아 한인회

인도네시아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한인회장 선거 공고

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칙 제12조, 제13조 및 제25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결의에 근거하여
2013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3년) 임기 한인회장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후보 등록 기간 : 2012년 11월 1일 - 2012년 11월 14일(14일 간)
2. 등록처 : 선거관리위원회(*한인회 사무실 내, 전화 : 021-521.2515)
3. 후보 자격
 - 가. 한인회 이사로서 지난 3년간 회비 및 찬조금을 매년 납부한 자.
 - 나. 만 45세 이상인 자로서 인도네시아 체재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다. 한인사회에서 덕망이 있고 도덕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라. 징역 6개월 이상의 확정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마. 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될 시 파산이 선고된 회사의 과점 주주 혹은 대표이사로서 등재되어 있지 않는 자.
4. 후보 등록 요건
 - 가. 소정 등록신청서(소정 약력서 포함)
 - 나. 후보의 여권 혹은 주민등록증 사본
 - 다. 후보 등록금 US\$50,000.- 은행확인 입금 Slip 사본
 - * 후보등록금 입금처
 - 은행명 Bank Woori Indonesia KEBI(외환은행)
 - 계좌번호 DDA 913-000537 220 500 7893
 - 계좌주 Yayasan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5. 투표일 및 투표 장소
 - 가. 투표일 및 시간 : 한인회이사회 2012년도 정기 총회 중(2012 년 12월 7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총회 일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자가 변경된 총회에서 투표합니다. 입후보자 소견 발표는 투표 전 투표장에서 합니다).
 - 나. 투표 장소 : 한인회이사회 2012년도 정기 총회장
 - 다. 투표 방법 : 무기명 비밀 투표
6. 투표권자 : 한인회 이사회원
7. 개표 및 당선자 발표 : 투표 직후
8. 문의처 : 선거관리위원회
 - 의장 : 이승민(MP. 0816-1911245)
 - 위원 : 조규철(MP. 0816-804190) / 강희중(MP. 0816-798221)
 - 김상태(MP. 0811-139407) / 김준규(MP. 0811-939221)

2012년 10월 31일

인도네시아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의장 이 승 민



재외선거운동 관련 금지·허용사례 안내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단체(향우회, 동창회, 종교단체 등)의 대표자가 회원을 대상으로 특정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자의 선거지원이나 승리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후보자의 홍보물 제작, 배포를 통한 투표 독려 행위
- 특정인을 위한 지지, 서명을 받는 행위 등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시행되는 선거운동은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개인자격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 비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단체활동 관련 알 수 없는 사례

- 단체(향우회·동창회, 정당의 후원조직 및 종교·친목단체 등)의 대표자가 회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자의 선거지원이나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단체와 정당 또는 후보자 공동명의로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단체가 특정인을 재외국민후보 추대 명목으로 재외국민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는 행위
-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단체활동 관련 알 수 있는 사례

- 단체의 대표자·임직원·구성원('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외)이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개인자격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발송
- 선거운동기간(제18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2012. 11. 27.~12. 18.까지)중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명의로 투표참여 권유

뜨물라왁은 자체가 가진 수많은 효능뿐만 아니라 화초로 가꿔 눈으로 감상하기에도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꽃이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가꾸는 정성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꽃이 피지 않는 시기라도 때때로 근경을 잘라서 식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형 슈퍼마켓의 향신료 코너에 가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재배는 지하 근경으로 하기 때문에 밝은 햇볕과 배수가 좋은 비옥한 사질토가 있는 곳이라면 아파트 발코니나 집 앞 정원, 마을 어귀 어디서든 잘 자랍니다.

인도네시아약용식물의 대표선수 뜨물라왁(Temulawak)을 눈여겨보시고 한 번 키워보지 않으시렵니까?



‘뜨물라왁(Temulawak)’ 인도네시아 약용식물의 슈퍼스타

백 진 협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인니생물소재연구센터장

뜨물라왁은 인도네시아 전통 의약인 ‘자무(Jamu)’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귀중한 식물입니다. 한국의 인삼과 같이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약용식물이기도 합니다. 뜨물라왁은 ‘자바 튜메릭(Java Tumeric)’이라고 불리며 자바어로 ‘Temu Lawak’, 순다어로는 ‘Koneng gede’, 마나도에서는 ‘Temo Labak’이라고도 부릅니다. 학명은 *Curcuma xanthorrhiza* Roxb.입니다. 우리가 흔히 식용으로 사용하는 생강(生薑, *Zingiber officinale* Rosc.)과 같은 생강과(family Zingiberaceae)에 속합니다. 카레의 주성분으로 많이 쓰이는 강황이 분류학적으로 같은 속(屬, Genus)이니 뜨물라왁을 ‘자바 강황’이라고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뜨물라왁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로 여겨집니다. 자바섬 깊은 산속 1,500~1,800m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인도네시아 전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일부국가에서도 대량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생산지역은 서부, 중부, 동부자바와 수마트라의 리아우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족자카르타, 솔로, 스마랑이 있는 중부자바지역 생산품이 성분과 함량이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뜨물라왁은 다년생초본으로 약 2.5미터까지 자랍니다. 잎은 뿌리에서 직접 자라나며 바나나잎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커다란 지하뿌리덩이인 근경(Rhizome)을 형성하며 성장합니다.



근경의 단면은 넓거나 짙은 노랑으로 강하고 자극적인 향(생강냄새)을 내며 아주 쓴 맛이 납니다. 꽃의 전체 형태는 마치 고깔과 같은 모양입니다. 한 개의 꽃이 아니라 꽃자루 안에 잘 감싸여진 노란 빛깔의 꽃들이 군집을 이뤄 하나의 큰 꽃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색깔은 희거나 노란 바탕에 상단은 핑크 또는 붉은빛을 띵니다.

뜨물라왁은 근경이 약용이나 식용으로 쓰이는 주요 부위입니다. 전통 자무에서는 이 근경을 다른 약용식물들과 함께 끓여 음용하며 특정한 질병치료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리(Sari)라고 불리는 뜨물라왁의 추출물은 전통케이크나 음료 같은 인도네시아음식에 노란색을 입히거나 향을 더하기 위해 첨가성분으로 사용되었고 미용을 위한 자연염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강황 대용 카레분말 성분으로 많이 쓰입니다.

뜨물라왁 근경은 항바이러스, 항염증 효능을 가지고 있어 간질환 치료(간염B, C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전부터 유명했습니다. 항박테리아 효능

도 있어 여드름 치료에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소화를 돕고 모유분비를 촉진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항암, 항콜레스테롤, 항부종 효능이 알려져 있고, 관절염, 근육통, 설사, 치질, 천식, 열감기, 어린이기침, 당뇨 등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네덜란드식민지 시절 자바투메릭은 유럽에 소개되어 담석 치료제와 간질환 치료제로 명성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코끼리의 질병 치료에 사용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뜨물라왁 근경의 주성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학분석에 의해 일부 활성성분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성분으로 ‘쿠쿠민Cucumin’이 있습니다. 근경 안에 약 2-3%가 들어있는데 항박테리아, 항염증, 항활성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 밖에 정유(essential oil) 성분도 있는데 항염증 효능이 있고 신장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승 은 호 배상



표지설명 ▶▶▶

한국인의 기상과 예술적 감성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삼죽오가 이번달 표지입니다

표지디자인 : Diki Satria Nugraha @dqddoodle

한인회장 선거공고.....	6
재외선거 관련 안내	7
인도네시아의 약용식물/뜨물라왁<백진협>.....	8
차 한 잔 마시며<김문환> /극우파의 발호.....	12
인터뷰>쁘라세티오 한국주재인니대사.....	14
11월 특집> 한-인니문화주간.....	19
제18대 대통령선거 주요 일정.....	23
재외선거 신고 신청 마감.....	24
한인상공회의소 연수 및 약식 컨설팅.....	25
연재기고<신성철> 인도네시아 대선에 새 바람이 분다.....	26
풍경과 사람<엄종한>/ 작은배	29

안녕하십니까. 박정자입니다.

재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가 또 일을 냈습니다. 큰 대회에 참가하기에는 아직 신참이건만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와 인니한인사회에 자긍심을 높여주었습니다. 모두들 애쓰셨습니다.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지난달 약속대로 한-인니문화주간을 총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약용식물을 새로 연재합니다. 기고를 허락해주신 백진협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독자들에게 흥미로운 정보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달에도 읽을거리가 뽕뽕합니다!

haninnewsinni@gmail.com 박 정 자

이모저모, 한인사회.....28

- 국경일 기념행사 개최
- 한인회, 문화주간 공연팀 초청 연회
- 태권도시범단과 만찬을
- ASEAN 주재 한국대표부 자카르타에 개설
- 대사관, 한국기업 및 브카시경찰과 간담회 개최
- 한-인니, 제주에서 경제협력강화 합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임시이사회 개최
- 제11차 세계한상대회
- 신임 자카르타주지사 Joko Widodo 취임
- 2012년도 한식전문조리인력 양성교육
- 재인니대한체육회, 전국체전에서 선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개설
- 재발리한인회 임원 개편
- 직스 고등학교 신축 교사 준공식과 비전선포식
- 중부발전, 띠레본 석탄화력발전소 준공
- KOTRA,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무역관 개설
- 월드옥타 제17대 회장 김우재 이사장 선임
- 한국건강관리협회, 인니학교보건관리자 초청연수
- 리틀램스쿨, 1% 나눔캠페인 참여
- KOWIN, 하반기 총회
- 제4회 루시플라워회 회원전
- (사)한국서예협회인니지회 창립전/자필묵연전
- 직스 소식
- 제2회 Cilandak Game을 개최한 JIS<박용희학생기자>
- 슈퍼스타4 데뷔 쇼케이스



Jalan-jalan Jakarta <사공경> /카페 바타비아.....	51
독자기고 /말린부 이등병의 편지<김주명>.....	54
속담으로 익히는 바하사인도네시아 <박정자> /Bukit jadi paya, paya jadi bukit.....	56
행복에세이 <서미숙> /오랜만에 만난 가을 앞에서.....	58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이승민> /재단법인법.....	60
와칭! 코리아.....	64
인터넷공모전 수상자 및 대상작.....	65
한인회 임원찬조금.....	68
알림.....	70
생활정보.....	76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승은호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박정자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엄종한,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극우파의 발호

김 문 환 / 논설위원

독도, 센카쿠, 쿠릴열도로 인해 일본은 한국, 중국, 러시아와 좌충우돌하며 사면초가에 빠지고 있다. 8월 20일에는 전격적으로 주미, 주중, 주한 대사를 동시에 경질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가 하면,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의 주관 아래 몇 개 되지도 않는 금메달을 따온 올림픽 선수단에 대한 환영 퍼레이드를 변화가인 긴자에서 벌이는 등, 일본은 지금 우익 정치집단 또는 시민단체에 의해 국수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시하라 지사는 지난 10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도쿄도를 위해 일했지만 이제는 일본을 위해 일하겠다. 오늘로써 지사직을 사임하고 신당을 만들어 동료와 함께 국회에 복귀하려 한다. 차기 중의원 선거를 목표로 보수세력을 결집한 신당을 만들고 스스로도 선거에 입후보할 계획이다” 고 발표하였다. 이시하라 지사는 1999년 도쿄 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해 당선된 이래 내리 4선에 성공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일본 극우단체의 원조는 1881년 후쿠오카에서 도야마 미쓰루와 그 동조자들에 의해 창설되었다가 1946년 맥아더사령부에 의해 해체된 현양사(玄洋社)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초기에 이 단체는 중국혁명을 지원하고 온갖 테러활동의 배후를 조종하였으며, 급기야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주도하며 한국의 국권찬탈을 준비하는데 앞장선 조직이기도 하다.

20년 후인 1901년 현양사의 해외공작기구로 우치다 료헤이에 의해 결성된 흑룡회(黑龍會)는 한반도, 만주, 시베리아 일대의 낭인들을 모아 일본제국주의 우익 편대의 첨병역할을 담당하였다. ‘흑룡’이라는 명칭은, 일본제국이 흑룡강(黑龍江) 일대의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이었다. 초기에는 현양사의 폭력적인 요소에 거리를 두기 위한 제스처로 낭인들 외에 내각의 장관과 군부 고위층을 회원으로 끌어들이기도 하였으나, 점차 범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 조직으로 변질되었다. 흑룡회는 대한제국의 정치에도 개입하여 1904년 8월 송병준, 윤시병, 이용구 등에 의해 조직된 대표적인 친일 어용단체인 일진회(一進會)를 배후에서 조종하여, 1910년 한국병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이른다. 이후 이 단체는 만주와 일본 등지에서 한국인 학살을 주도하고 일본제국이 주창한 ‘대동아공영권’을 지원하였다. 종전 이후에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고다마 요시오에 의해 그 명맥을 이어갔다. 그는 야쿠자 신분이 아니면서도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일본 암흑가의 대부로 군림하며 일본 정치는 물론, 한국정치에까지 손을 뻗치게 된다.



지난 10월 26일 미국에서 한인거주비율이 가장 높고, 뉴욕 맨하탄이 코 앞에 보이는 뉴저지주 펠리세이즈파크(Palisades Park) 시에 세워져 있는 위안부 기림비가 ‘말뚝 테러’ 를 당했다. 기림비 건립을 주도한 한인 권리신장운동 단체인 한인시민참여센터에 따르면, 현지시간 10월 26일 시내 공립도서관 앞에 있는 위안부 기림비 바로 옆에 박혀있는 말뚝이 발견되었으며 이 말뚝에는 ‘다케시마(竹島)는 일본의 고유 영토’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한다. 이 말뚝은 지난 6월 서울 주재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발견된 말뚝과 동일한 형태로, 당시 사건은 일본 극우단체 대표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伸之)의 소행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한편 미국 경찰당국은 범인색출에 나서 엄중히 처벌할 것을 공언하고 나섰으며, 찰스 랭글, 빌 파스크렐 연방 하원의원도 “우리는 한인사회를 겨냥한 어떤 혐오범죄도 강력히 규탄합니다. 범인은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비난 성명을 내었다.

이시하라 지사는 금년 8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인이 강제 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 어려운 시절 매춘은 이익이 남는 장사” 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은 바 있다. 최근 일어난 뉴저지주 기림비 말뚝 테러사건은 이시하라 지사의 망언과 상통하며, “핵무장을 해야 한다” 는 등의 망언을 일삼던 이시하라 지사가 이제 의정활동을 통해 그 강도를 높이겠다 하니, 향후 한일간의 정치기상도는 ‘흐림’ 으로 예보되는 날이 많아질 전망이다. ■

한 국과 인도네시아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했고, 20세기 대부분을 정치적 격변으로 보냈다는 역사적 유사성과 함께 20세기말에는 경제위기로 큰 타격을 받았던 국가로 근현대사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2013년이면 수교 40년을 맞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관계는 1973년 정식 수교 이래 대통령의 상호방문과 정상회담 등 꾸준한 외교노력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상승하고 있다. 관계 자료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현재 한국의 제8위 교역파트너(수출 7위, 수입 7위)로써 한국의 제38위 투자주체국이며, 한국의 제7위 투자대상국으로 부상되어 있다. 이는 양국관계의 현주소를 잘 나타내고 있다.

최근 들어 나날이 깊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격변기 역사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우방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의 동반자로서 정부와 민간차원의 협력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펼쳐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존 아리스띠안토 뿌라세띠오(63), 신임 한국주재 인도네시아대사, 그는 한국과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다며 자신의 어머니가 ‘원조 한류 팬’ 이었다고 웃음 머금은 얼굴로 말한다. 그때 맺은 한국과의 인연들이 그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큰 동선이 되었을 것이다. 청년시절 어머니 덕분에 첫 인연을 맺은 한국에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공관장으로 나가게 되었으니 말이다.

부임을 눈앞에 둔 뿌라세띠오(63) 신임대사와의 인터뷰는 세 번의 약속시간 변경 끝에 아주 어렵게 이루어졌다. 쪼개도 쪼개도 나지 않을 것 같은 바쁜 시간을 기꺼이 할애한 뿌라세띠오 대사의 배려에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마음을 미루어 짐작해본다. 서울로 출발하기 사흘 전 10월 1일, 꾸닝

안에 위치한 개인사무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이웃집 아저씨처럼 편안하고 다정한 신임 한국주재 인도네시아대사를 만났다.

◆ 부임 예정이시라는데, 준비 잘 되시지요.

10월 4일 서울로 떠납니다. 한국은 지금이 계절 중 가장 아름다운 가을이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세 달 뒤면 최고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는 겨울이라는데, 저는 1970년대 미국 뉴욕에서 몇 년간 생활하여 겨울추위를 경험한 바 있지만 추위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 한국대사로 임명 받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사실 한국대사로 임명 받으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정식 외교관 출신도 아니고 단지 경제 분야에 오래 몸담아 왔기 때문입니다. 대사로 임명된 뒤 국가가 저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하여 차분히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사실 대사로 하면 주재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전방위로 뛰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도요노 대통령께서 최근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의 경제 교류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은 1960년대, 그러니까 불과 반세기 전까지 만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현재 아프리카의 최빈국수준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고도산업화 과정을 거쳐 1996년 부자클럽 OECD 멤버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한국은 한국인들의 애국심, 정열, 도전정신으로 일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발전과 성장이 한 세대(30년)내에서 전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감동적입니다. 여담입니다만, 한국은 원래 가부장

존 아리스띠안토 브라세띠오

신임 한국주재 인도네시아대사



적 남성지배사회였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여성분들의 활약이 너무나 눈부십니다. 여성골퍼들이 세계 여성골프계를 짝 장악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고요. 정말 한국 여성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 인도네시아의 한국커뮤니티를 어떻게 보십니까.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는 정말 훌륭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 진출한 기간은 짧지만, 타국 커뮤니티보다 훨씬 잘 인도네시아 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는 한국인들마다 어쩌면 그렇게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잘 구사하시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아무튼 한국인들은 대단하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대사님께서 이제 곧 부임하실 한국에는 많은 인도네시아 인들이 근무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비록 작은 사고들도 있기는 하지만 모두들 열심히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국

민에 대해 한국인들도 공정하게 아주 잘 대우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 근로자가족들도 모두 감사히 생각합니다. 한국도 출산율이 저조하여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은 필요한 노동력을 우리 인도네시아로부터 받아 상호 윈-윈 할 수 있기를 희망 합니다. 한국은 우리 근로자들이 일하기 원하는 제1 순위 국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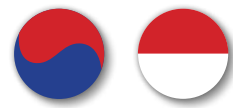
◆ 한국과의 경제교류 전망에 대한 전망을 해주신다면.

현 정부 들어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더욱 정성을 쏟고 있다고 느낍니다. 유도요노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두 분은 개인적으로도 아주 친한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친밀도를 통해 양국이 더욱 친밀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팀은 자동차 분야는 물론 군사장비를 포함한 전 산업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 고위층의 접촉이 지속될 것이고 경제협력도 더욱 가속될 것은 자명합니다. 유도요노 대통령께서는 개

인적으로 한국의 발전에 대해 경외심을 갖고 있는데다가 남은 임기 2년 동안 국가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시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경제 분야 외에 제가 한국 부임 뒤 하고 싶은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는 한국인들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꼭 바꾸고 싶습니다. 사실 저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한국친구들도 자카르타에 처음 와보고는 한국서 듣고 공부한 것과 많이 달라 무척 놀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 한국 부임 때 가족도 동반하시나요.

제 아내도 이곳에 많은 한국 친구들이 있어서 한국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고 있고, 자녀는 둘인데 이미 성장하여 모두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두 저의 대사직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며 축하하였습니다.



쁘라세띠오 대사는 인터뷰 말미에 국회 인준 과정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국회 인준 때 많은 의원들로부터 사적으로 한국의 케이팝과(K-pop)과 드라마(drama)에 대해 너무 많은 질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들 의원의 자녀 대부분이 케이팝과 드라마에 열광한다는 겁니다. 저 역시 한국어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한국에 가면 케이팝과 드라마에 대해서도 배워야 하기 때문에 무척 바빠질 것 같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한국의 성공적인 소프트파워의 성장을 보면 부럽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문화도 그럴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는 말로 인터뷰를 맺었다.



선사시대 : 최초 거주인은 4백만 년 전 직립보행원인 피테칸트로푸스 에렉투스(일명 자바인)인 것으로 추정되며, BC 3,000년경부터는 아시아대륙에서 이주해 온 몽골계말레이인이 원주민을 구축하고 정착을 시작하였다. BC 1,000년경부터 이들 몽골계말레이인들은 인도네시아 원주민뿐 아니라 인도 아리안 이주민들과의 혼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였다.

힌두왕국시대(말라유, 마자파히트 왕국) : 1세기경 인도 상인들이 향료, 금속 등의 통상을 위해 왕래함으로써 힌두문화가 자연스럽게 인도네시아에 유입되기 시작되었으며, 5세기경부터 칸타리, 잠비, 말라유 등 힌두왕국(644-689)이 번성하였다. 13세기 말경에는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대의

힌두왕국인 마자파히트 왕국이 동부자바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나갔다. 전성기에는 현재 전 인도네시아 군도는 물론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남부 지역까지 그 영토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15세기 후반기에 접어들어 왕위쟁탈전으로 마자파히트 왕국이 쇠퇴하고 신흥 이슬람교가 대두되면서 세력이 점차 약해지게 되었다. 발리섬은 현재 힌두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불교왕국시대(스리위자야 왕국) : 불교를 신봉하는 이주민들은 7세기 후반 힌두왕국인 말라유 왕국을 멸망시킨 후 수마트라 팔렘방을 중심으로 스리위자야 불교왕국을 건설하여 수마트라, 말레이반도, 자바섬까지 지배권을 확장하는 한편 중국, 인도와의 활발한 교역을 기반으로 불교문화와 상업, 무역의 중심국가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9세

기 전후 중부자바의 족자카르타에 건립된 보르부드르 불교사원은 1,000여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근대에 들어 발굴되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평가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의 보물이다.

이슬람왕국시대(말라카 왕국) : 이슬람교는 13세기 초 말라카를 중심으로 수마트라, 자바 등 해안 지방에 근거를 둔 인도와 아랍의 향료상인들을 통해 유입되었다. 15세기 초 말라카 왕국의 출범 후 말라카는 북부수마트라, 자바 등 인근 도서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중심지로서 이슬람 전파를 주도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이슬람교는 힌두교와 불교문화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터전 위에서 수세기에 걸쳐 정착되었기 때문에 중동지역의 이슬람교와는 달리 세속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네덜란드식민지시대(1602~1942) : 1511년 포르투갈이 말라카제도의 향료무역을 독점하고자 서구 열강 중 가장 먼저 말라카왕국을 점령하였으나 말라카가 지배하고 있었던 거대한 아시아무역망은 장악하지 못하였다. 네덜란드는 포르투갈을 말라카제도로부터 축출하고, 1602년 동인도회사를 세워 향료무역의 전권을 장악하였으며, 그 이후 동인도회사를 통해 340여 년 동안 인도네시아 전역에 대한 식민통치를 실시하였다.

일본점령시대(1942~1945) : 1942년 3월 일본은 네덜란드와 전쟁상태로 돌입, 인도네시아 수도인 바타비아(현 자카르타)를 점령하고, 3년 반 동안 군정통치를 실시하였다.

인도네시아공화국시대(1945년 이후)

수카르노대통령시대(1945~1966) : 2차 대전이 일본의 항복으로 끝나자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독립이 선포되고, 수카르노와 하타가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초대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도 1949년 11월 2일,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인정하는 협정에 서명하기까지 4년 동안이나 독립투쟁을 계속해야했다. 1950년 9월 인도네시아는 유엔회원국이 되었다.

수하르토대통령시대(1966~1998. 5.) : 수하르토 전락사령관은 1966년 3월 수카르노 대통령으로부터 실권을 이양 받고 5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32년간의 장기집권을 해오다가 1998년 5월 사태로 인해 대통령직을 하비비 부통령에게 이양하였다.

하비비대통령시대(1998. 5.~1999. 10.) : 하비비 대통령은 개혁정치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재임 중 동티모르 사태, 발리은행스캔들,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처리문제, 대학생 소요에 대한 군경의 강경진압에 따른 후유증 등 전정권의 정치적 유산을 치유하지 못하여 정치, 사회적 갈등과 불신이 지속되었다. 1999년 10월 14일 하비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협의회(MPR)에서 국정소명연설을 하였으나 표결 끝에 거부되자 골카르당의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였다.

와히드대통령시대(1999. 10.~2001. 7.) : 국민협의회(MPR)는 1999년 10월 20일 대통령선거에서 Abdurrahman Wahid를, 그리고 다음날 부통령선거에서는 Megawati Soekarnoputri 여사를 부통령으로 각각 선출함으로써 인도네시아는 33년 만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게 되었다. 와히드 대통령은 국가통합 유지와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정파를 포함한 국민연합내각을 발족시켰다. 와히드 대통령과 메가와티 부통령의 취임으로 인도네시아 정세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아체를 비롯한 일부 지방의 분리주의 요구는 여전히 강하게 나타났다.

메가와티대통령시대(2001. 7.~2004. 10.) : 국민협의회(MPR) 특별회의에서 와히디 대통령이 축출되어 메가와티가 대통령직을 승계하였고, Hamzah Haz 통일개발당 총재가 부통령에 선출되었다. 2004년 4월 5일 국회의원 선거 등 총선으로 골카르당은 제1당으로 복귀되었다.

유도요노대통령시대(2004. 10. 20~현재) : ‘통일된 인도네시아(United Indonesia) 정부’의 출범을 선언한 유도요노(Yudhoyono) 대통령 시대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2년 후 대선을 앞두고 있다.



11월 특집

봉어네방네 정말 맛있어요~~!

봉어네방네처럼 맛 있었단

한-인니 문화주간

재인니한인사회는 해마다 9월과 10월 사이에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한-인니 문화주간이 열리기 때문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화합과 소통으로 양국의 화합을 증진시키고 있는 문화주간 행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로 한마당 가득했다.

올해의 문화주간은 10월 3일부터 7일까지 따만 앙그렉 쇼핑몰에서 펼쳐졌다. 주인니한국대사관과 자카르타한국문화원이 주최한 이 5일간의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양국의 우의를 확인하고 더 발전된 관계를 약속하는 감사제의 역할과 의미 아니었을까.

한국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공연 팀이 초청되어 공연을 펼쳤다. 스페셜퍼포먼스를 통해 주요 행사가 한차례 펼쳐지고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의 신기에 환호했으며 한국 최고의 타악그룹 노름마치, 밀양백중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68호)의 하용부, 비보이 월드컵의 우승팀인 라스트 포 원 그리고 세계 곳곳에 한국현대무용을 알리고 있는 이인수 EDx2 무용단이 참가하여 한국의 멋과 미를 한껏 과시하였다.

초청 공연에 더하여 한인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참여도 돋보였다. 한바패(회장 서동욱), 자카르타아버지양상불(지휘 안영수), 자카르타어린이합창단(지휘 안영수), 색동회(회장 강희중), 국악사랑(단장 장방식), 파나메라어린이합창단(지휘 김경화), 한인니문화연구원(원장 사공경)이 열과 성을 다한 참여로 행사를 더욱 빛나게 했으며, 문화주간 때마다 빠지지 않고 행사에 참여하는 반동 한사모와 UI의 한국어과 학생들도 있었다.

특히 K-FOOD, K-POP, Korea Winter Travel Fair, Korean Film Festival 등 특별 행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유하고 공감하며 더욱 가까워진 축제였다.



*** 발라이까르띠니에서 열린 스페셜 퍼포먼스**
인도네시아 고위급 인사, 외교단, 현지 언론매체 등 약 4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다소 거친 듯 하면서도 정제된 이인수 EDx2 무용단과 파워풀한 에너지로 관객을 압도한 비보이 라스트 포 원, 연신 카메라플래시를 터뜨리고 리듬에 맞춰 발을 구르며 열렬하게 반응하던 관객들은 공연이 끝나자 기립박수를 보냈다. 온몸으로 흥을 보여준 하용부, 노름마치는 태평소와 사물(쇠, 징, 장고, 북)로 관객과 소통했다. 입으로 내는 장단소리로 전통 랩을 구사하며 신명과 열정의 무대를 통해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였다.

*** 세계태권도연맹시범단 태권도 시범**

세계태권도연맹시범단 나일한 단장과 최동성 감독이 동행한 20여 명의 단원은 한국태권도의 우수성과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 시범단은

태권도 시범의 꽃인 품세와 격파를 선보이자 관객들은 아찔한 탄성을 자아냈다. 눈을 가리고 3m 높이를 날아올라 돌려 차는 공중피망격파, 음악과 스토리가 있는 무예시범, 강남스타일 춤과 결합한 무예시범 등으로 이어지며 무도와 무예가 겸비된 멋진 무대가 펼쳐지며 태권도가 또 하나의 한류임을 확인시켰다.

*** 한국관광공사 Korea Winter Travel Fair**

한국을 찾아 눈꽃을 보고 스키를 타려는 인도네시아 인들에게 한국관광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에 참가한 엠마(현지 여행사 근무)씨는 “한국은 무료체험 할 수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기 위해 참가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 강남스타일 콘테스트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가 마련한 강남스타일 커버댄스 대회와 강남스타일 춤 배우기 행사이다. 본선에 오른 20여개 팀이 강남스타일 노래에 맞추어 춤 솜씨를 자랑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Forever Dance Crew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한국왕복 티켓을 거머쥐었다.

* K-푸드 페스티벌<한식경연대회는 부인회, 한식체험은 코윈이 협조했다>

인도네시아인들의 한국음식 사랑과 요리솜씨를 뽐내는 요리경연대회로 세 사람이 한 팀을 이룬다. 사전에 실시한 ‘한식에 대한 사랑’의 사

연 공모전을 통과한 10팀이 선발되어 50분 동안 닭매운탕과 잡채로 실력을 겨뤘다. adiguna ngadiman(한국대사관 요리사), 박미례(한국부인회장), Diena Lemy (PUH 학장) 등 세 명의 심사위원 심사가 끝난 후 관객들은 요리를 나누어 먹으며 한식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 으뜸상을 받은 Bokeum팀은 “블로그를 통해 한국음식을 배웠다. 많은 정보를 준 한국친구들이 정말 고맙다” 고 말했다.

adiguna ngadiman(한국대사관 요리사)의 떡볶기와 삼계탕 한식특강도 열렸다. 한식을 직접 요리하는 현장에 함께 하며 깊은 관심을 보이던 인니인들은 “참 맛있다”는 찬사를 연발했다. 친근하게 느끼고 이해하는 모습이였다.

* B-boy 라스트 포원

국내는 물론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의 비보이 배틀에서 다수의 우승을 차지한 세계 최고의 비보이 라스트 포원 ; 위에서 무언가 몸을 잡아 당기고 있는 것처럼 공연 내내 한 손은 바닥에, 두 발은 하늘을 향해 있었다. 단체가 하나가 된 듯 선보이는 댄스 또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비보이 공연의 묘미인 프리스타일타임에서 개개인의 놀라운 브레이크 실력과 함께 팝핀까지 선을 보였다. 앙코르가 쏟아지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다. 공연이 끝난 후 송원경(SPH 5학년)양은 “B-boy 오빠들 너무 멋있어요. 저는 B-girl이 돼야겠어요”라며 얼마나 연습을 해야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했다.



* 하용부와 노름마치

중요무형문화재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하용부와 한국전통음악의 독창적인 어법(장단, 호흡, 시김새)을 이으며 우리 시대에 부합하는 전통음악을 추구하는 노름마치의 공연은 타악기와 관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우리전통음악의 다양성 안에서 새로운 소리를 찾아가는 공연이었다.

노름마치 : 놀음(노름)과 마치다(마치)가 합쳐져 최고의 명인을 뜻하는 남사당패의 은어이다.

* 이인수 EDx2 무용단

검은색 복장의 무용수, 배경음악도 잠시, 어두운 적막 속에서 꿈틀대는 무용수들의 몸짓은 난해하다. 하지만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힙합과 현대무용, 연극과 마임 등 편식 없는 공연을 보여주며 관객들의 감성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춘 현대무용이었다. 유연함과 격렬함이 조화를 이룬 무대에도 예외 없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하는 합성이 쏟아졌다.

* 한복모델선발대회

선발된 10명의 모델이 맵시와 무대매너, 관객호응도 등을 겨룬 한복모델선발대회. 참가자들은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좋은 경험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한국전통의상을 입고 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을 오래 잊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좋은 무대를 마련해 준 한국문화원이 고맙다” 고 말했다.

* 한인니문화연구원

바틱, 방패연 시연과 양گل롱 합주

한인니문화연구원에서 마련한 이 행사는 인니 바틱과 한국 이미지를 접목시켜 소개하는 독특한 시연이었다. 바틱으로 문양된 한국의 이미지에서 참가자들은 낯설음과 친근감을 동시에 느낀다. 둘이 하나 되는 체험. 방패연만들기 또한 한국 연과 인도네시아 연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즐거운 시간이 된다. 관객들에게 양گل롱을 나누어주고 평소에 접하기 쉽지 않은 양گل롱 합주로 행사를 마무리한 것도 독특한 시도였다.



**** 행사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말하는 참여소감

-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이 궁금했어요
- 강남 스타일은 우리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 태권도는 정말 환상적이에요
- 대~박!!!!!!!!!!
- 작년에 비해 규모가 커진 것 같아요
- 무료로 한국영화를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 상품이 푸짐해요
- 붕어빵 정말 맛있어요 ~~~~~~

* 케이팝 페스티벌

‘커버댄스 페스티벌’은 인도네시아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 아이돌 룩의 노래와 춤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음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무대였다 ; 참가자들은 2NE1, 주얼리, 다비치, 지나, 걸스데이, 시크릿, 샤이니, 인피니트 등 K-POP 열풍의 선두에 있는 가수들의 무대를 재현했다. 춤동작은 물론 복장과 헤어스타일까지 아이돌그룹을 흉내 낸 이들의 공연은 대부분 실제 아이돌그룹의 무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수준급이었다. 관객들의 환호성도 공연 열기 못지않게 폭발적이었다.

* 퓨전연극(울산)과 한인단체 공연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문화적 보편성을 기반으로 가장 한국적이고 지역적인 소재를 통해 문화적 감수성을 충족시키는 울산씨어터예술단(대표 백운봉)은 지역전통문화를 토대로 창작극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한국의 전통민요와 사물놀이 장단에 어우러진 퓨전 연극을 선보였다 ; 한인단체의 열렬한 참여가 없었다면 아무리 유명한 공연단의 무대가 줄을 잇는다고 해도 김빠진 맥주 맛이었을 것이다. 서두에서 밝힌 한인단체들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인니인 그룹들이 있어 한-인니문화주간은 반석 위에 놓인 듯 든든하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3년, 내년에 수교 40주년을 맞이한다. 수교 이래 줄곧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서로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호의적인 상대국이다. 그런 이유로 한-인니 관계는 앞으로 커다란 확대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현대 외교는 문화로 시작해서 문화로 마무리된다. 군사, 정치, 경제 모든 관계에서 양국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여타의 관계는 국익이나 정세에 따라 변화하지만 문화를 매개로 맺어진 관계 속에는 그보다 끈끈한 공동체의식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한-인니 양국이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문화는 많은 분야에 걸쳐 있다. 미술과 공예전시, 전통과 현대물 공연, 문학과 예술, 영화, 관광, 스포츠 등 모든 분야의 교류가 가능하다. 그리고 문화주간은 이런 문화교류의 실험무대이며 실천무대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내년에 수교 4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주간이 벌써부터 기대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주요사무 일정

※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11. 10. 14~ ‘13. 1. 18.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국회의원선거일전 180일부터 대통령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⑨ 규§136의2
‘12. 7. 22~ ‘12. 10. 20.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작성	선거일전 150일부터 6일까지	법§218의4,5,6 규§136의4,5
10. 31~ 11. 9.	재외선거인명부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9 규§136의8,9
11. 10~ 11. 14.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및 이의신청 (불복신청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선거일전 39일부터 35일까지	법§218의10,11
11. 15~ 11. 18.	재외선거인명부등 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선거일전 34일부터 31일까지	법§218의11③ 규§136의10②
11. 19.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선거일전 30일	법§218의13①
11. 25~ 11. 26.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원고 제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법§218의14④ 규§136의13
11. 29까지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 운영기간 등 공고	선거일전 20일까지	법§218의17③④
12. 5~ 12. 10.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 규§136의15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재외투표 등 회송	재외투표기간만료일후지체없이	법§218의21② 규§136의23
12. 19.	투표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법§155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176 규§95의2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22만여 명 신고 · 신청 추정 재외선거권자 223만여 명 중 10%대 수준 예상

중앙선거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고 · 신청에 주신 재외국민에게 감사드리며, 신고 · 신청한 그 마음으로 투표에도 꼭 참여에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주인니한국대사관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7월 22일부터 91일간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재외선거 참여 신고 ·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추정 재외선거권자 28,281명의 15.92% 수준인 4,590 명이 신고 ·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전 세계 재외선거 참여 신고 · 신청자 수는 220,042명으로 추정 재외선거권자 (2,233,695명)의 9.85% 수준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전 세계 163개 공관 중 신고 · 신청자 수 기준으로 10번째로 많은 유권자가 신고 · 신청에 참여하였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 신고 · 신청 접수결과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할 때 약 40%가 증가(전 세계 기준으로는 78%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대통령선거에 대한 재외국민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순회 접수, 가족 대리 신청 및 이메일 접수가 허용되어 신고 · 신청률 증가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지나, 공관 외의 장소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줄곧 논의되었던 투표 편의 방안이 입법되지 않아 공관까지의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로는 공관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므로 참여의사가 있어도 도저히 공관까지 올 수 없는 재외국민이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중앙선거위는 판단하고 있다.

접수된 재외선거 신고 · 신청은 명부 작성(10. 31 ~ 11. 9)과 열람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19일(선거일전 30일) 명부가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은 12월 5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 중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문화원(에퀴타워 17층)에 설치될 재외투표소에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시아진출 한국기업 CEO ·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 및 약식 컨설팅 사업

- 한국기업 현지인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 2012년 11월 27일 (화), 리츠칼튼 꾸닝안
- 약식 컨설팅 사업: 2012년 11월 28일 (수), 해당기업 방문
- 한국기업 CEO 역량강화 연수 : 2012년 11월 29일 (목), 리츠칼튼 꾸닝안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주관으로 현지진출 한국기업 CEO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연수 및 원포인트레슨(one-point lesson) 방식 컨설팅을 실시한다.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CEO 40명, 관리자 40명(총 80명) 등을 대상으로 현지 진출기업의 체질강화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한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게 될 이번 프로그램은 현지 한국기업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의 CEO에서 관리자까지 연수대상을 확대하고 외부 교수를 일부 활용하여 커리큘럼을 다양화하는 등 특화된 역량강화 연수와 원포인트레슨을 실시하게 된다.

△ 첫 날은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현지인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가 11월 27일(화), 리츠칼튼 꾸닝안에서 실시된다.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중소·중견기업 중간관리자(현지인)를 대상으로 하며 <조직충성도 강화를 위한 효과적 조직관리기법>, <중간관리자를 위한 현장품질 관리기법>

을 강의한다.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수료식과 함께 수료증이 수여된다.

△ 둘째 날 11월 28일(수)에는 2개 분야에서 각 1개 기업을 선정하여 해당기업을 방문하는 약식 컨설팅사업이 진행된다. 조직관리 분야와 품질관리분야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 셋째 날 11월 29일(목)에는, 리츠칼튼 꾸닝안에서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CEO 역량강화 연수가 이어진다.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CEO 및 경영진을 대상으로 <혁신DNA도출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기법>, <경영자가 알아야 할 현장품질 전략>을 강의한다. 관리자 연수와 마찬가지로 수료증이 수여된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 함께 - 인니 진출 한국 CEO를 위한 작은 팁’을 주제로 특강도 계획되어 있다.

참가 문의 상공회의소 남지화 간사
<021-527-7539 : kocham@cbn.net.id>
11월 16일까지 선착순 접수 마감

한인상공회의소

about Korean Chamber of Commerce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승은호)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상·공인의 개선과 발전, 성장을 도모하고, 한인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5일 한인회 산하 6개 상임분과위원회 중에서 상공분과위원회로 별도 설립되었다.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의 한인상공위원회는 유관기관의 주요 인사를 예방하고, 인니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인기업의 애로사항을 토론하고 건의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노무간담회나 설명회를 개최하여 상공업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인도네시아 대선에 새 바람이 분다

● 아웃사이더들의 반란

차기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가 2년도 채 남지 않았으나, 유력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 주류가 아닌 아웃사이더들이 갑자기 부상해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언론에서 ‘아웃사이더들의 반란’으로 부르는 비정치권 인물들의 부상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가까이는 오는 12월 한국 대선의 무소속 안철수 후보뿐 아니라 일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비정치인 출신들이 각국 정치 지형을 뒤바꾸며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실시된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사업가 출신인 조꼬 위도도(51. 이하 조꼬위) 중부 자바주 솔로 시장이 결선투표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는 2014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간 대리전 성격으로 치러졌다. 이후 조꼬위는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면서 기존 정치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 이런 현상에 대해 해외 언론과 아시아 정치 전문가들이 각종 분석을 내놓는 가운데, 공통적인 배경으로 ▲폐쇄적인 기존 정치권의 쇄신 노력 실패 ▲부정부패에 대한 민심 폭발 ▲소셜미디어 세대의 반란 등을 꼽았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왕조에 가까운 폐쇄적인 정치권의 대표적인 예인데, 가장 최근 치렀던 2009년 대선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대권 후보로 1965년 축출당한 수카르노의 딸, 1999년 강제로 하야한 독재자 수하르토의 사위와 그의 재임시절 장군 2명이 나섰다. 그리고 수하르토 정권 하에서 장군을 지낸 인물 중 한 명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현 대통령이 당선됐다.

● 다홀란의 기행과 조꼬위 효과

골까르당과 투쟁민주당 등 기존 정당의 확고한 기득권 유지, 지지부진한 부정부패 청산 및 개혁 지연 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팽배하고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요구도 강해진 상황에 다홀란 이스칸 국영기업장관과 조꼬위 자카르타 주지사가 지난 1년 새 정치판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미디어 기업 경영자 출신인 다홀란은 고위급 관리들에게조차 겸손과 확실성을 요구하며 공무원 사회에 새 문화를 만들고 있다.

다홀란 장관은 지난해 10월에 유도요노 내각에 참여한 이래, 고위급 관리들이 즐겨 입는 복장을 거부하고 거슬리는 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독설을 뽐내며 바로잡는 직설적인 행동으로 연일 언

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는 취임 직후 농가 실태를 파악한다며 족자카르타의 한 농가에서 1박을 해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아침 출근 시간에 톨게이트 요금소에서 정체가 일어나자, 차에서 내려 직접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줄서있던 차량 운전자들에게 그냥 통과하라고 손짓을 했다. 지난 8월에는 인도네시아 관문인 수카르노-하타 공항에 갔다가 화장실이 지저분하자 시범을 보이겠다며 직접 화장실을 청소해 화제가 됐다.

다홀란 장관의 이런 기이한 행동이 학생과 젊은이들에게 크게 공감을 얻으면서 그가 차기 지도자로 부상하게 됐다. 또한 연일 기존 공무원 문화를 비판하는 행동으로 뉴스거리가 되다 보니 대중적인 인기도 높아졌다. 하지만 그는 장관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행동으로 3차례나 경고를 받았고, 전력공사 PLN 사장 시절 업무와 관련해 국회로부터 반격도 받고 있다. 다홀란의 개혁적인 자세와 행동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한 공무원이 더 많은 인도네시아 공직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

그의 몇몇 행동은 압두라흐만 와히트(이하 구스두르) 전 대통령과 비슷해 보인다. 구스두르 대통령은 대통령궁을 국민의 집으로 바꾸었고, 대통령 집무실의 배타성을 없애고 다원주의를 장려했다. 구스두르 시대에 시작한 변화가 다홀란까지 이어지면서, 대통령, 지도력,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고위급 지도자들의 특징인 가식적인 고결함, 거들먹거림, 국민과 거리두기 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변화를 위한 열망이 아직 절정에 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홀란은 정치지도자들 사이에서 독특한 모습을 보이면서 홀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찾고 있다. 그는 괴팍한 성향 때문에 정당의 후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점으로 인해 국민들은 그를 차기 지도자로 인식하게 됐다.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를 치르면서 시민들의 기대가 다홀란에서 조꼬위로 이동했다. 조꼬위는 우아한 행동으로 조용히 상대를 공격하는 매력적인 스타일의 지도자로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수십 년간 쌓은 명성을 단박에 얻었다. 시민들은 조꼬위 주지사를 친구이자 위대한 스승으로 여기는 반면 많은 정치인들은 그를 의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정치비평가들은 현재 차기 대선에 미칠 조꼬위 효과를 연구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가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되기 전부터 그를 2014년 대선 후보 예정자 명단에 올렸다. 물론 이런 현상이 그가 대통령이 될 준비가 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요구가 그에게 투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은 강압적인 리더십보다는 열정에서 우러나는 자연스러운 리더십을 원한다. 앞으로 권위적이고 금권주의적인 관료들은 시민의 호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차기 대통령이 조꼬위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조꼬위 효과가 전국적으로 그리고 모든 분야에 확산되고 있다. 조꼬위 스타일이 지도자의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언론은 그의 경제 컨셉을 조꼬노믹



스라 부르고, 연장자에 대한 존경을 칭찬하면서 성숙한 시민의 모범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조꼬위를 못 마땅하게 생각하던 비빔 왈루요 중부자바 주지사가 그에게 ‘멍청한 인간’이라고 욕했으나, 그는 공손하게 비빔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인사를 해 함께 일던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상대의 손에 입을 맞추는 인사는 인도네시아에서윗사람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인사다. 비빔은 조꼬위가 자신의 공무용 차를 현지 고등학생이 개발한 다목적차량(MPV)인 ‘에스엠까(SMK)’로 바꾼 것을 비판했으나, 조꼬위는 비빔의 권위적인 행동에 겸손하게 대응함으로써 스스로를 더 빛나게 만들었다.

현재 차기 지도자에 대한 사회의 기대를 바꿀 수 있는 흐름은 없어 보이며, 현재의 흐름을 역행하려 한다면 오히려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빼판 다슬라니는 차기 지도자는 막연한 이미지보다 당당한 실체가 있어야 하고 거만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하며 청렴하고 권모술수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2014년 대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젊은 유권자에게 호소력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모든 계층이 수용할 수 있는 캐릭터여야 한다고 말했다. 빼판은 또한 지도자는 중립적이고 원칙적이어야 하며 부패한 비서관이 올리는 달콤한 보고서에 현혹되지 말고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정당들은 차기 대선 후보를 명확하게 지명하지 못한 채 조꼬위 스타일에 반대만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더 이상 권위적이고 거만하며 급권주의를 신봉하는 가식적인 지도자를 찍지 않을 것이다. 물론 기성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무대에 남아 있겠지만 그들의 야망이 현실과 얼마나 부합할 지는 의문이다.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은 아직 대선 후보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고, 제1당인 골카르당은 아부리잘 바끄리(65) 총재 그리고 그린드라당은 뿌라보워 수비안또(60) 총재를 후보로 추대한 상황이다.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 유습 깔라, 아부리잘 바끄리, 위란또 등의 기성 정치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소프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로 이미지를 바꾸려 할 것이다. 정치 지도자는 위대한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국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하며, 특정 인물의 한계를 인정

하고 더 나은 자질을 가진 인물을 인정하고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빼판은 피력했다.

● 차기대통령은 참신한 인물이어야

여론조사기관 폴트래킹 인스티튜트(Poll Tracking Institute)가 최근 실시한 2014년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조꼬위 주지사가 지지율 78.6%로 1위 후보에 올랐고, 현 빠라마디나대학교 교수이자 재무장관을 역임한 아니스 바스웨단이 지지율 73.2%로 2위를 했다. 이어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세계은행 국장이 지지율 70.2%로 3위를 기록했다. 이번 보고서는 각 분야 전문가, 애널리스트, 학자, 언론인, 대학생, NGO 활동가, 원로정치인 등 오피니언리더 100명을 인터뷰 방식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들은 대통령후보의 연령대로 35~53세 범위를 선택했다.

앞의 3명 이외에도 재벌 기업인 차이를 탄중, 부패 스캔들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아나스 우르바닝룸 총재, 정치활동가 파지룰 라흐만, 메가와띠의 딸 뿌안 마하라니, 투쟁민주당 당직자 뿌라모노 아눔 위보워, 기따 위르야완 무역장관,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노동이주장관 등이 잠재력을 가진 인물로 언급됐다.

● 조꼬위의 고민

비주류 정치인들은 주류로 나아갈수록 자신이 차별화하려 했던 기성 정치권과 타협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조꼬위의 경우 자카르타 시민의 큰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당장 교통정체와 빈곤 문제 등을 가시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조꼬위에 대한 호감이 반감으로 바뀔 것이다. 한 칼럼니스트는 조꼬위는 메시아가 아니라며 자카르타를 개선할 주체는 시민 자신이라는 글을 써서 그에 기대를 우려했다. 그가 기존 정치권의 반발과 만성적인 문제에 발목이 잡혀 식물 같은 주지사가 될 지 아니면 자카르타를 개혁하고 차기 대권에 도전하게 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가 일으킨 새 바람이 차기 대선에 미풍이 될 지 태풍이 될 지 궁금하다.





작은 배 위에 누워 물결 가는 대로 흘러가 보았는지 흘러가 보았는지
지붕 위에 앉아 불게 타오르는 저녁놀 보았는지 저녁놀 보았는지
해질 무렵 제비처럼 나의 영혼 하늘 높이 띄울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찾아갈 텐데 저 영원의 나라로 저 기쁨의 바다로

한밤중에 깨어나 곱게 다가오는 새벽 별 보았는지 새벽 별 보았는지
꽃잎 속에 물방울 그 어린 세상 들여다보았는지 들여다보았는지
해질 무렵 제비처럼 나의 영혼 하늘 높이 띄울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찾아갈 텐데 저 영원의 나라로 저 기쁨의 바다로

글 : 조동진 곡 '기쁨의 바다로'

사진과 글 **엄종한** 한인뉴스편집위원

국경일 기념행사 개최



우리 민족의 큰 생일인 개천절과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10월 2일 자카르타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대사 김영선)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한인사회 각계 인사들은 물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르만 구스만 인도네시아지역대표의회(DPD) 의장과 하타 라자사 경제조정장관, 마리 문화관광창조부장관 등 인도네시아정부 고위 각료들이 대거 참석하여 양국의 변함없는 우의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는 노름마치, 비보이 공연 등과 함께 한국의 전통춤과 음악이 식전공연으로 펼쳐져 한국예술의 감수성과 한국문화의 세련미를 유감없이 보여주며 참석자들의 극찬을 받았다. 특히, 세계태권도연맹시범단은 한국태권도의 놀라운 기술과 ‘강남스타일’ 댄스를 접목시킨 퍼포먼스로 축제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김영선 대사와 하타 라자사 장관은 양국의 동반성장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희망하는 인사말을 전하며 참석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국경일 기념케이크를 잘랐다.



한인외, 문화주간 공연팀 초청 연회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2012 한국문화주간 행사의 공연을 위해 인니를 방문한 공연팀을 초청해 그들의 노고에 답례했다.

“한국의 얼을 확실하게 심어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는 김영선 대사와 신기엽 한인회수석부회장의 인사에 이번에 방문한 예술단을 이끄는 김신아 단장은 “세계 여러 곳을 다녀보았지만 인니

처럼 따뜻한 곳은 처음이다. 환대에 감사드립니다”고 화답했다.

인도네시아 BAGUS! 한국인 BAGUS! 조규철 한인회수석부회장은 “세계적 자랑거리인 예술단이 정말 자랑스럽고 한국인으로써 자긍심을 느낀다”며 건배를 제의했다.

인도네시아 BAGUS! 한국인 BAGUS!

태권도시범단과 만찬을

인도네시아에 한류 태권도 전파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조규철 한인회수석부회장이 2012 한국문화주간에 초청된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시범단과 만찬을 함께 하며 재인니한인사회가 보내는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대사관은 한국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널리 보급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문화주간’ 행사에 태권도시범단을 초청했다. 이번 문화주간에 파견된 태권도시범단은 나일한 단장과 최동성 감독을 포함한 단원 2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작년에 시범단으로 참여했다는 한 단원은 “인도네시아에 다시 와보고 싶었다”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게 웃었다.

태권도시범단은 국경일리셉션(10/4), 대통령궁(10/5), 따만 앙그렉쇼핑물(10/7)에서 총 7

차례 시범을 보이며 한국태권도의 우수성과 높은 기량을 알렸다.

조규철 수석부회장은 태권도시범단이 대기업을 방문해 시범을 보였던 에피소드를 전하며 “시범을 본 15,000명의 직원들 반응이 대단히 열렬했다”고, 인도네시아에서 한국태권도의 전망을 밝게 진단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주재 한국대표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개설 - 백성택 신임 대사 부임



백성택 주아세안대표부대사가 수린 핏추완 아세안사무총장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고, 10월 16일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주아세안대표부는 2011년 11월 발리에서 개최된 제1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우리 정부의 대표를 계기로 10개 대화 상대국(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뉴질랜드, 러시아) 중 4번째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설립되었다.

주아세안대표부 개설 및 백성택 초대 대사의 공식 활동 개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아세안 관계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 아세안 외교 중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주아세안대표부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 및 아세안+3(한국, 일본, 중국),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등 관련 협의체 업무를 위해 아세안사무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각종 협력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고, 아세안의 대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중인 자카르타 소재 아세안상주대표위원회(CPR)와의 긴

밀한 협의를 통해, 아세안의 핵심 대화 상대국인 우리나라의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ASEAN의 우호협력관계는 1989년 대화 관계 수립 이후 • 2009년 한-ASEAN 센터 설립 • 한-ASEAN FTA 발효 • 한-ASEAN 특별 정상회의 개최, 2010년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등을 통해 급격히 발전했다.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제2의 교역상대(1,249억불/흑자액 약 187억불, 2011년), 미국에 이어 제2의 해외투자대상 지역(61억불), 중동에 이어 2대 건설수주시장(128억불)이다.

대표부는 10월 29일, 김영선 대사, 수프라토 마르 토세토모 인도네시아 외교부 기관협력 특별고문, 게데 응우라 스와자야 아세안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 김규현 외교통상부 차관보, 신기업 주인도네시아 한인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백성택 대사는 “아세안대표부 개설은 정부의 신 아시아 외교정책의 결정체”라며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증진하고 관련 협의체 업무를 위해 ASEAN 사무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사관, 한국기업 및 브카시 경찰 간담회 개최

주인니한국대사관은 10. 16. 브카시경찰서 회의실에서 Isnaeni Ujiarto 신임 브카시경찰서장, Ary Purwnato 정보과장, 브카시지역 한국기업 대표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선 대사, 박영식 공사, 이희성 경찰영사, 김도형 노무관, 이무찬 찌가랑한인 회장, 김갑한 브카시한인회장, 김재호 한국기업협의회 회장, PT 대림통상 이준하, 삼성전자 강대진 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김영선 대사는 한국기업은 이 지역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노사문제가 노조강압시위가 아닌 노사 간 대화와 협상에 통해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브카시경찰서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특히, 대사관과 이 지역 한국기업들, 브카시경찰 간에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노사문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석한 한국기업인들이 아웃소싱 관련 노조강압시위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사례와 불안감을 현장감 있게 설명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경찰의 적극 대응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브카시경찰서장은 지역 경찰의 활동현황 및 한국기업관련 시위동향을 브리핑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회사(12년 현재 1,765개) 및 근로자(962천명)에 비해 경찰인력(1,580명)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노조시위 발생 시 경찰은 지방정부와 협조하여 노조를 자극하지 않고 노사갈등이 해결되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Ary 정보과장은 대사관, 한국기업들과의 연락처를 공유하고 상호 협조기로 하였다.

김도형 노무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아웃소싱 금지, 최저임금인상 요구 등 노사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이 지역의 한국기업 대표들이 관할 경찰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노조의 강압적인 행동 등에 따른 한국기업의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고 간담회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안-인니, 제주에서 경제협력 강화 합의

안-인니 경제협력을 위한 실무 TF 및 제주 이니셔티브에서 '8대 프로젝트' 선정

10월 12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행사인 '제주이니셔티브'(Jeju Initiative)가 개최되었다.

제주 이니셔티브에 앞서 전날에는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실무 TF'가 열려 무역투자, 산업, 건설, 인프라, 에너지, 자원, 환경 등 8개 분야에서 40여개 경제협력 의제가 논의되었다.

이번 경제협력 행사에는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과 하따 라자사(Hatta Rajasa)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장관을 각각 대표로 하여 150여 명의 양국 정부관계자, 경제인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양국 장관은 세계경제가 어려울수록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유무역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실무 TF에서 논의된 프로젝트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이날 제주 이니셔티브에서는 한국측이 5개, 인도네시아측이 3개의 주요 관심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양국 장관은 이날 발표된 '제주 이니셔티브 8대 프로젝트'를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측은 ▲인도네시아천연가스개발·CNG운송·발전연계프로젝트 ▲숨셀-6 석탄발전사업 ▲인도네시아 강(江) 복원사업 ▲농산업

복합단지(MIC) 조성 ▲조선·플랜트산업 협력을, 인도네시아측은 ▲Bengkulu-Muara Enim 석탄철도 ▲순다해협 대교 ▲Batam-Bintan 대교 등을 발표했다.

제주이니셔티브에서 선정한 8대 핵심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의 「경제개발 마스터플랜(2011-2025)」을 위한 대규모 장기 국가개발 프로젝트로 총 규모가 500억불을 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 순다대교는 수마트라섬과 자바섬을 연결하는 69km 길이의 다리로 총 사업비가 240억 불에 이르는 국가적 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약 2.4억명)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동남아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큰 국가로서, 월스트리트저널과 골드만삭스 등에서 포스트 브릭스(Post BRICs)의 하나로 평가할 정도로 성장잠재력과 가능성이 큰 나라이다. 한국은 2010년 12월 인도네시아의 「경제개발마스터플랜(2011-2025)」 주파트너로 참여한 이후, 두 차례의 경제협력 실무 TF와 한 차례의 장관급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2월 상설협력채널인 양국 공동경제협력사무국을 설치한 바 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경제협력 행사는 물론이고 경제협력사무국과 같은 상설협의채널을 통해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이 더 많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지식경제부>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승은호)는 지난 10월 11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차기 한인회장 선거를 관리 감독하게 될 선관위를 구성했다.

차기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선관위 구성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임시이사회 개최

승은호 회장의 부재로 회의를 이끈 신기엽 수석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인니한인사회는 천국에 비유해도 좋을 만큼 화합이 잘 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제3의 한인사회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동참하고 소통하는 한인사회로 이어나가자” 며 선거에 앞두고 있는 한인사회에 화합과 원만한 소통을 주문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조규철 수석부회장, 강희중 부회장, 김상태 이사, 김준규 이사, 이승민 이사를 선관위원으로 선임했다. 가장 연장자인 이승민 이사가 선관위 의장 직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7월 정기 이사회총회에서 개정된 한인회 회칙에는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인도네시아 법에 의한 사단법인체이다. 인니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을 대표하는 봉사단체로서 한인들 상호간에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한-인니 간

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체육, 과학, 예술 등 가능한 분야에서 상호이해 및 협력하여 관계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양국 간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제1조 명칭 및 제2조 목적)되어 있다. 또한 제11조(회장, 부회장 선출 및 임기)에는 ‘회장은 이사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선거를 위해서는 회칙에 규정된 대로 회장 임기 만료 60일 이전에 선거를 공고하고, 선거 공고 후 14일 이내에 후보자 등록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10월 말까지 구성을 마치고 11월 1일 선거공고를 한 후 11월 14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아야한다. 차기 한인회장 선거는 12월 7일 정기 하반기이사회에서 실시된다.



글로벌 코리아 안상 네트워크 제11차 세계한상대회

제11차 세계한상대회가 ‘글로벌 코리아의 힘, 한상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세계 47개국에서 활동하는 내외동포 경제인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을 선언한 이번 대회는 ☆기업전시회 오프닝 ☆외교부장관 주최 환영 오찬 ☆리딩 CEO 포럼 ☆영비즈니스 리더 포럼 ☆한상 비즈니스 서밋(한상 FTA 포럼 · 서울 비즈니스 포럼) ☆서울특별시장 주최 만찬 등으로 첫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대회기간 내내 관심이 집중되었던 ‘기업전시회’는 우수 중소기업 350곳을 엄선해 서울시 특별테마관, 중소기업진흥청 Hit 500기업 특별테마관 등 총 391개 부스로 운영되어 국내 중소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마지막 날에는 유통바이어 초청상담회(사전매칭)를 통해 대형 백화점 · 홈쇼핑 · 마켓 · 슈퍼 및 해외에 이전트 등이 참여하는 상담시간도 가졌다.

내년 세계한상대회는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에서 개최된다. 폐막식에 참석한 이병록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한상대회기를 인수하며,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될 2013년 제12차 한상대회의 성공적인 행사준비와 개최를 다짐했다.



한편, 대회가 끝난 후 재외동포경제인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는 미담이 전해지고 있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홍명기 듀라코트 회장이 서울저소득가정 아동교육비를 위해 2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홍 회장 외에도 한상대회 참여 인사들의 기부가 이어졌다. 조병태 11회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이 5,000달러, 정진철 로얄아이맥스그룹 회장이 2,000달러, 문대동 삼문그룹 회장이 1,000달러를 서울모금회에 기탁했다. 기부금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신임 자카르타 주지사 Joko Widodo 취임



10월 15일, Joko Widodo 신임 자카르타주지사와 T Basuki Purnama 부주지사가 취임식을 갖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의 임기에 들어갔다.

Jokowi 신임 주지사는 교육과 건강 분야를 우선순위에 두고 건강한 자카르타 건설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2012년도 한식전문조리인력 양성교육

다시 찾고 싶은 한식당 문화를 만들기 한식세계화협의체를 위한 간담회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한국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여나가자. 좋은 시작이니 멈추지 말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자”
..... 김영선 대사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다시 찾고 싶은 한식당문화 조성을 위해 한식당경영주, 요리사 및 홀서빙요원들을 대상으로 ‘2012년도 한식전문조리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한국전통음식연구소 윤숙자 소장과 연구원들이 함께 한 이번 프로그램은 국내 한식당 트렌드, 해외 한식당 성공사례 소개와 인테리어 예시, 한식 조리 및 표기법 표준화 관련 세미나를 시작으로 한식당 방문조리교육과 간담회로 이어졌다.

11월 2일의 간담회에서는 대사관, 한인회, 부인회 등 한인사회 대표들과 교육에 참여했던 경영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률, 세무, 회계분야 강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에 참여한 경험을 나누었다. ‘한식세계화는 한식당에서’라고 결의를 다지며 이번 교육에 참여하여 80%이상 출석한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되었다.

윤숙자 교수는 “우리 강사진들이 씨앗을 뿌려놓았으니, 여러분들이 꽃을 피워 한식을 널리 알리기 바란다”고 이번 교육의 뜻을 잘 이어나가기를 당부했다.

한식당협의회대표(한양가든)는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 교육을 통하여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교육의 장을 만들어준 대사관과 관계기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대사관의 이미라 임무관은 “(첫날)교육을 마무리하면서 윤교수님의 제안으로 손에 손잡고 ‘사랑의 띠’를 만들어 ‘고향의 봄’을 합창했습니다. 가슴 뭉클! 감동적이었습니다. 금세 다시 찾고 싶은 한식당으로 업그레이드 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자리를 떠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며 뜨거운 교육현장의 열기를 전했다.

이 교육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최하고 (사)한국전통음식연구소 (소장 윤숙자)가 주관했으며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의 후원으로 12일간 진행되었다.

재인니대안체육외, 전국체전에서 선전



재인도네시아선수단 7종목에 출전
해외동포 16개 국가 중 종합 6위
금메달 1, 은메달 5, 동메달 9개 획득

종목별 경기상황 종합

축구 - 준결승에 진출하기까지 꺾과의 경기(12일)를 5대 0으로 가볍게 승리하고 뉴질랜드팀과의 경기(13일)에서는 상대팀의 골을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은 채 10대 0으로 쾌거를 거두었던 인도네시아대표팀은 15일, 열린 독일 팀과의 준결승전에서 1대 2의 스코어로 중국, 독일에 이어 동메달에 머물렀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경기였으므로 아쉬움보다 수확이 많았다.

골프 - 여자골프단체전 김춘자, 조예숙 선수 동메달 획득. 10월 10일부터 대구컨트리클럽에서 시작된 골프경기는 10월 12일을 마지막으로 3일간의 경기를 마쳤다. 남자 출전선수는 아쉽게도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나 여자단체전에서 김춘자, 조예숙 선수가 첫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볼링 - 이성하 선수가 남자개인전에서 동메달 획득(12일)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13일에 이어진 2인조 경기에서는 아쉽게도 메달순위에 진입하지 못하고 4위에 머물렀으나, 다음날(14

일) 3인조 경기에서 김유동, 심경민, 이성하 선수팀이 은메달을 획득하고 김영기, 이상호, 이창수 선수팀이 동메달을 획득하며 메달행진을 이어갔다. 16일에 펼쳐진 마스터즈 경기에서는 심경민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볼링은 은메달 2, 동메달 2을 획득하여 메달 유망종목으로 주목 받게 되었다.

태권도 - 10월 13일, 5개국(25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자 4체급, 여자 4체급으로 실시된 태권도 경기에 첫 출전하여 3개의 메달을 거머쥐는 선전을 보여주었다. 여자 67kg급에서 박정숙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고 남자 67kg급에서 구현진 선수가 은메달을, 남자 80kg급에서는 하승우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14일 경기에서는 남자 80kg급 박영민 선수와 여자 57kg급 오수연 선수가 각각 한 개의 메달을 따내 2개의 은메달을 추가 획득하는 결실을 맺으면서 종합 2위를 차지하여 방진학 감독이 트로피를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메 달 집 계

금 1, 은 5, 동 9

16개 참가국 중 종합 6위



제93회 대구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재인도네시아선수단(이하 인니선수단)이 금메달 1개 은메달 5개 동메달 9개를 따내며 해외동포경기에서 종합 6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인니선수단은 작년 첫 출전에 이어 두 번째 참가한 경력에 비해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어 화합과 소통으로 하나 된 재인니한인사회의 역량을 마음껏 보여주고 돌아왔다.

초반부터 메달 획득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인니선수단은 대회 막바지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꾸준히 메달을 추가하는 기염을 토해 대회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1위 일본(금13 은5 동4), 2위 필리핀(금4 은7 동3), 3위 호주(금4 은1 동3), 4위 중국(금3 은7 동5), 5위 뉴질랜드(금3 은2 동4)에 이어 6위(금1 은5 동9)를 차지한 선수단은 메달집계에서도 1위 일본 22개에 이어 메달 15개를 획득해 중국과 나란히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종 목 별 메 달

골프 동1, 볼링 은2/동2,

태권도 금1/은3/동1

스쿼시 동2, 탁구 동2, 축구 동1.

스쿼시 - 남자 허용호, 여자 한미혜 선수 동메달 획득(13일), 허용호 선수가 사이판 선수와의 첫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승리하면서 필리핀과 일본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하였고 한미혜 선수도 일본과 필리핀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하여 남녀 각각 동메달을 따내면서 종합 3위를 거두었다.

탁구 - 단식경기 안혜중, 이미정 선수 동메달 2개 획득. 탁구 단식경기에서 남자 안혜중 선수와 여자 이미정 선수 모두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꺾고 10월 14일 준결승전에 올랐으나 뉴질랜드 팀에게 패해 아쉽게도 동메달에 그쳤다.

경상북도 대구시에서 개최된 제93회 전국 체육대회, 폐막식은 성적발표, 종합시상, 폐회사, 대회기 전달의 순서로 7일 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2013년 제94회 전국 체육대회는 인천에서 개최된다.

박동희 선수단장은 “최선을 다해 싸워 기대 이상의 메달을 따낸 선수단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선수단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를 보냈다.

대한체육회인도네시아 양영연 회장은 “선수들이 합심하여 좋은 기량을 펼쳤으며 해외동포 국가팀들과 좋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출전에 대사관, 한인회 그리고 한인동포들과 후원사들의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며 기쁨을 전했다.

체전 참가 동영상과 사진은 대한체육회인도네시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www.ksai.or.kr

<사진제공 인도웹, UPH 학생 전가을>



법무법인 지평지성,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개설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인도네시아 사무소를 개설했다. 지난 10월 10일에 열린 개소식에는 한인회, 한국 및 인도네시아 기업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지평지성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인도네시아에서 지명도 높은 로펌 NSMP(Nurjadin Sumono Mulyadi & Partners)와 제휴하여 코리아데스크를 설치하고, 권용숙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사무소장으로 파견하였다. 지난 1년간 인도네시아 현지 연수를 마친 권용숙 변호사는 NSMP의 인도네시아 변호사 및 지평지성의 본사 변호사들과 함께 고객

밀착형 법률서비스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NSMP Iwan 변호사는 “인니가 해외투자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이때, 지평지성의 코리아데스크 개소는 인니의 한국기업들이 당면한 투자에 대한 법률문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인니는 아세안 회원국으로 한국기업들의 투자에 있어서 많은 여건을 갖춘 국가이다” 라고 말했다.

지평지성은 이미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7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번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개설로 더욱 넓고 다양한 동남아시아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재발리한인회

지난 10월 1일, 2년의 임기를 마친 제10대 윤여각 회장의 후임으로 제11대 장병록 회장이 선출되었다고 알려졌다. 새롭게 단장된 재발리한인회의 임원진을 다음과 같다.

발리한인회장 장병록 0811 39 7778 balijang@hanmail.net

총무 김효민 0811 386 2993 elvis0148@hotmail.com

이은영 연락처 : 0811 39 9660 balieyi@naver.com

영사협력원 이태우 0812 3793 9452 Email : goparking@hanmail.net

사무실 Tel/Fax : ++ .62.361-723070

JL.By pass Ngurah Rai No.555 Suwung kau, Denpasar Bali

“첫째,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할 것. 둘째, 글로벌 소양과 지역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춘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할 것. 셋째, 바른 성품과 감성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할 것. 넷째, 인도네시아 교민사회의 교육·문화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것. 다섯째 학생, 학부모, 교사가 삼위일체가 되어 소중한 우리 자녀들의 꿈을 만들어 갈 것”

— JIKS VISION, 선종복 교장 —



JIKS 고등학교 신축 교사 준공식과 비전 선포식

JIKS(교장 선종복)는 10월 4일, 고등학교 신축 교사 준공식과 비전 선포식을 거행했다. 행사는 김영선 주인니한국대사를 비롯한 박덕훈 EBS 사장, 정무웅 재단부이사장, 인니교총회장 Bp. Sulistiyo, 나화정, 전호신 전임 교장, 조규철, 신기업 한인회 수석부회장 등 국내외 각계 인사 100여 명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참석하여 나래홀(432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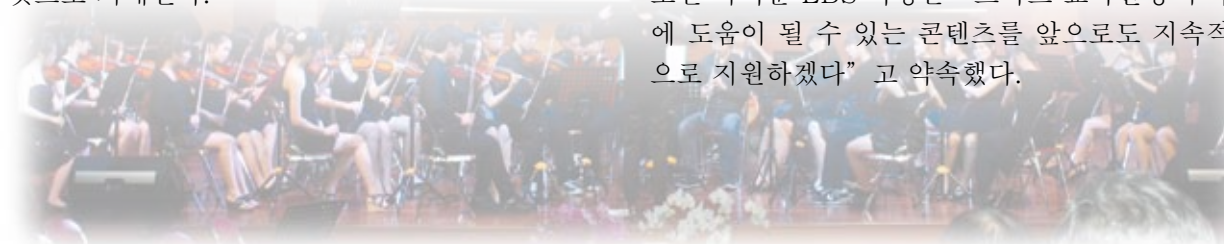
건축면적 6,659㎡에 4층으로 지어진 신축 교사에는 교실 45개와 432석 규모의 공연장(나래홀), 자기주도학습실(반딧불이관), 사이버학습실(EBS 자료실), 상담실, 역사관(회의실)을 비롯한 5개의 교과실과 영어수준별 학습을 위한 분반실 7개, 가사실, 미술실 외 기타 특별실 7개, 교사휴게실 및 매점 등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공연전시장 등 다양한 행사장으로 활용하게 될 나래홀은 최신식 음향, 영상, 조명시설을 갖추고 있어 한인사회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1월 28일 기공식 이후 1년 8개월 만에 완공된 신축교사는 ‘SMART JIKS’를 모토로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교육여건 등 SMART 환경 조성을 위한 선종복 교장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김영선 대사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선도 중요하다.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학교발전을 위한 세부방안이 마련되어서 최고의 재외교육기관, 어디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명문 학교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축하인사와 함께 큰 기대감을 전했다.

승은호(한인회장) 직스재단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개교 초 열악했던 환경을 회고하며 신축 교사와 비전 선포를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은 직스가 재인도네시아한인사회에 교육,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을 의미하는 날이라고 기쁨을 표현했다.

또한 박덕훈 EBS 사장은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중부발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준공



Jero Wacik 인도네시아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 Nur Pamudji 인도네시아전력공사 사장, Ahmad Heyawan 서부자바 주지사 등 인도네시아 정관계 인사와 최평락 한국중부발전(주) 사장, 강태환 삼탄(주) 부회장, Shigeru Ushio 주인니일본영사 등 관계자 300여 명이 대거 참석한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종합준공식이 지난 18일 찌레본 현장에서 개최되었다.

중부발전은 지난 2006년 해외자원개발 전문기업인 삼탄, 일본 마루베니상사, 인도네시아 인디카그룹과 함께 국제전소시업을 구성해 해외 경쟁사들을 제치고 이 사업을 수주했다. 중부발전이 27.5%, 삼탄이 20% 지분의 주주사로 참여한다. 이 사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제입찰로 발주한 최초의 민자 발전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준공 후에는 30년 동안 발전소 중부발전이 운영을 맡고, 삼탄은 연료인 석탄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다. 발전소 설계와 감리는 한국전력기술(주), 건설은 두산중공업(주)이 턴키방식으로 수행했고 한국수출입은행과 일본수출입은행이 자금을 지원했다. 두산중공업은 발전소 건설공사를 통해 약 6억 달러의 소득을 창출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에 최대 규모의 탄중자바 석탄화력 운영사업(1천320MW)과 북부 수마트라의 완푸 수력발전사업(45MW) 등을 수행하고 있는 중부발전은 이번 찌레본 발전소 준공으로 인도네시아 최대 인구밀집지역인 자바섬 전체 발전량의 약 9%에 해당하는 발전설비의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찌레본 발전사업은 발전소 설계에서 재원조달까지 국내기업들이 주도했으며 국내 표준석탄화력 기술을 채용한 ‘대용량 석탄화력 발전소’의 해외 첫 건설 사례이다.



KOTRA,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무역관 개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호)가 10월 15일 인도네시아 제2도시인 수라바야에 115번째 해외무역관을 개설했다.

수라바야 시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 개관식에는 오영호 KOTRA 사장, 김영선 인도네시아 대사와 하지 수카르워(Mr. Haji Soekarwo) 동부자바 주지사 등 양국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수라바야는 3,700만 동부자바의 주도(州都)로서 부자바의 중심도시인 수도 자카르타와 함께 인도네시아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거점이다. 수라바야 무역관은 자카르타에 이어 인도네시아에 개설되는 2번째 무역관이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 세계 4위인 2억4천만 명의 인구 그리고 연평균 6.5%의 고도성장을 기반으로 거대 내수시장으로 성장 중인 유망시장이다. 특히 인구의 60%이상인 1억5천만 명이 30대 이하인 젊은 나라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성장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멕시코, 한국, 터키와 함께 향후 10년간 브릭스(BRICs)를 대체해 세계경제를 이끌어갈 MIST 국가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과는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된 이후 지난해 교역이 300억 달러를 넘어선 동남아 최대의 경제 협력국이자 세계 제6대 교역 대상국이다.

KOTRA 오영호 사장은 “수라바야 무역관 개소를 통해 MIST 국가인 양국 기업 간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것” 이라고 밝혔다.

KOTRA는 신흥시장에 우리기업 거점을 확보하여 최근의 수출부진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 남은 기간 중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4개 무역관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출처 : KOTRA>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962년 한국 무역신화의 첫 단추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뿌리를 두고 설립된 이후 수출시장 개척과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첨병 역할을 해오고 있다.

* MIST : 브릭스(BRICs) 용어를 처음 사용한 골드만 삭스가 유망 이머징국가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를 지칭해 MIST로 명명



월드옥타 제17대 회장 김우재 이사장 선임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World-OKTA)의 차기회장으로 김우재(69) 현 이사장이 선임됐다. 제1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열린 경북 경주에서 김 이사장은 13일 이사회를 통해 이사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후 다음날인 14일 총회에서 회원들의 추인을 얻어 권병하 현 회장의 뒤를 이었다.

김우재 차기 회장은 “모든 것을 정관과 회원들의 결정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2년간 월드옥타를 위해 헌신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차세대 무역 일꾼을 육성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충남 홍성 출신의 김우재 차기 회장은 한국항공대학을 나와 대한항공에 입사, 10년간 근무하다가 1977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식품유통업, 건설업, 관광업, 부동산업 등을 아우르는 ‘무궁화유통’ 그룹의 대표이다. 월드옥타동남아시아연합회장,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재단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인도네시아후생복지훈장, 자랑스러운 해외경영인상, 대한민국 고객감동 그랑프리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차기 이사장으로는 이청길 상임집행위원, 감사에는 배일수 차세대무역스쿨위원장과 서정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수석 부회장에는 유대진 중국 연길지회장이 임명됐다. 2012년 1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새 임원진은 향후 2년간 월드옥타를 이끌게 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인도네시아 학교보건관리자 초청 연수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조한익)는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초등학교 건강증진사업의 성공을 위해 학교보건관리자를 초청하여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국내연수를 실시하였다.

반다아체 사업수행기관인 Dr. Marzuki 빠르마타 하티병원 원장, 반다아체교육국장, 보건국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학교보건 활성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상호협력을 방안 협의하고,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국립암센터, 대우해양조선 등 한국의 보건교육정책 기관 및 선진의료시설, 사업현장시설 등을 방문했다.

조한익 회장은 “이 사업을 위해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빠르마타하티병원과 협력, 인도네시아 초등학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관리협회와 한인회는 건강협약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재외동포들을 진료해주는 협력 사업을 하고 있다.





끌라빠가딩과 땅그랑에서 인터내셔널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리틀램스쿨 박현순 원장이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들 중 최초로 ‘1% 나눔 캠페인’ 후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은 국내의 기업들과 정부기관, 각 시도와 함께 ‘행복한 나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띄고 있다.

지난 10월 12일, 리틀램스쿨은 약정 체결과 함께 자카르타 본원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에는 월드휴먼브리지의 대표이사인 만나교회 김병삼 담임목사와 늘푸른교회 김신섭 담임목사, 리틀램 교사들 및 학부형들이 참석하였다.

리틀램스쿨 ‘1% 나눔 캠페인’ 참여

월드휴먼브리지는 빈곤과 차별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의 당면 문제 해결을 목표로 2009년에 설립된 국내 및 국제후원단체이다. 이 단체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기부문화의 확산을 실현하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내 후원으로는 모아사랑, 엔젤맘 프로젝트, 아이러브, 사랑의 공간 프로젝트, 1% 나눔 캠페인 등이 있으며, 해외사업으로는 볼리비아 IT 교육사업, 르완다 조립사업, 아프리카 우물파기, 아프리카 살충 모기장 보내기 등이 있다.

‘1% 나눔 캠페인’을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기관과 뜻을 함께하는 자치단체, 대학교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신혜수 UN경제사회문화관리위원, 강지원 변호사 등이 상임대표로, 텔런트 선우은숙 등유명인들이 홍보대사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KOWIN 하반기 총회



세계한민족네트워크(KOWIN)는 지난 10월 22일 하반기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순재 코윈 인도네시아담당관은 제12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여수컨퍼런스(8월 28일~31일, 32개국 225명 참가)에 참가소감을 회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한민족 여성’을 주제로 한 이번 여수컨퍼런스는 간접적으로나마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과 다른 나라의 코윈활동을 아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코윈에서 운영하는 밀알한글학교 3개소(찌까랑, 땅그랑, 자카르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끌라빠 가딩에 한 곳을 더 설치할 준비를 마쳤다는 보고와 다문화가정 어린이나 가족원들이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문제 제기, 11월 17일에 개최될 인도네시아 차세대 한인 여성들과의 생생토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순재 담당관은 “각 방면의 여성패널들과 참가자들이 벌이는 생생한 토크쇼는 현재 인도네시아 여성차세대의 현주소를 읽고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차세대 한인여성의 생생토크

- 1부 - 차세대 한인 여성들의 현주소
- 2부 - 차세대 한인 여성들을 위한 길라잡이

2012년 11월 17일(토) 10시~15시
한국문화원(Equity Tower 17층)

여성가족부, 한국문화원, 한국부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
문의 : 김명화 0818 737 874
모순옥 0812 9458 2507



제4회 루시플라워외 회원전

- 조화와 상생의 양기 -

루시플라워회(회장 최정순) 네 번째 회원전이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자카르타한국문화원에서 열려 한인사회에 한가득 꽃향기를 전했다.

전시장에 들어서니 정면 상석에서 동양꽃꽂이가 손님을 맞았다. 한국을 떠나 해외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꽃빛으로 빚어놓은 한국의 선과 여백을 환하면서 수선스럽지 않게 보여준다. 최정순 회장은 꽃꽂이를 배우는 사람들이 대개는 서양꽃꽂이를 많이 배우는데 동양(우리)의 꽃꽂이를 먼저 알고 나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인니에서는 재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동양꽃꽂이에 많은 무게와 의미를 두고 있다는 최 회장이니 전시회에서 동양꽃꽂이는 당연 상석이다.

이번 전시회는 ‘조화와 상생’을 주제로 했음에 한눈에 느껴진다. 인니에서 자란 꽃소재들을 모아 우리 한국의 정서와 조화를 이루어낸 것, 그렇게 함께 가는 것이다. 다음 전시회 때는 인도네시아 인들을 초청해 회원들과 함께 하는 전시회를 해보고 싶다고 한다. 출품작은 총 31점, 동양꽃꽂이와 서양꽃꽂이, 생활기초꽃꽂이 등이 출품되었다.

최정순 회장은 “특히 아이들이 많이 보러왔으면 좋겠어요.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외국생활이 이런 문화활동으로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소망을 말하며 그간 3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던 회원전을 앞으로는 2년마다 개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3명의 특별사범(서정희, 이정민, 김정숙)을 비롯해 70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학습과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루시플라워회는 끝라빠가딩, 찌부브르, 땅그랑 등 3개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꽃꽂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환영!
최정순 회장의 연락처는
<0811-834-026>이다.



(사)한국서예협회인도네시아지회 창립전 제8회 자필묵연전



‘시시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른다’

제8회 자필묵연전이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자카르타한국문화원에서 열렸다. 특히 ‘(사)한국서예협회인도네시아지회 창립전’을 겸한 이번 전시회의 오프닝에는 김영선 대사를 비롯해 각계 인사들과 인도네시아서예협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그간 견실한 활동으로 지회 승인까지 결실을 맺은 손인식 선생의 노고를 축하해주었다.

김영선 대사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는 서예 특유의 멋을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여유를, 현지인들에게는 한국 전통의 멋을 알리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붓을 통해 전달되는 한국인 특유의 정신과 멋이 현지인들에게 어떤 매력으로 다가갈 지 궁금하다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2012년 대한민국서예대전과 서울서예대전에 많은 입상자를 배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는 자필묵연(회장 채종경)을 지도하고 있는 인재 손인식 선생은 “서예는 먹이 지닌 포용성, 붓이 지닌 무한 표현성, 화선지가 받아들이는 무한 형상이 특징인 예술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수양정심의 도구이기도 했으나 현대에 와서는 순일함과, 활력, 무한의 표현예술로 자리하고 있습니다”라고 서예를 정의하며, 10회 정기전 후에는 한국에서 전시회 계획을 전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32명의 회원이 작품 80여점을 출품했다. 총 32명 출품회원 중 22명이 남성 회원이다. 수련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시문과 고전의 아취, 철학적인 사고가 내면으로 향하는 장년 시기의 남성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제공한다는 것이 수련자들이 전하는 경험이다.



JKS 골프부

McDonald' s JUNIOR GOLF CHAMPIONSHIP 에서 우승



우승 : 10학년 조세익

3 위 : 9학년 심민섭

10월 6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McDonald Indonesia 주최 McDonald' s JUNIOR GOLF CHAMPIONSHIP에서 직스 골프부가 우승과 3위의 영예를 안았다.

2012 Primary Spelling Bee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0월 18~19일 이틀 동안 나래홀에서 2012학년도 Spelling Bee 대회를 실시하였다.

영어시간에 배운 단어들을 모아 만든 Spelling Bee Book을 열심히 공부하여 예선에 통과한 각 반 8명의 학생들이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가하여 평소에 쌓아온 영어단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기회를 가졌다.

재미있는 Spelling Bee 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영어 단어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고 단어 및 듣기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친구들이 지켜보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원어민 선생님이 제시한 단어를 듣고 침착하게 철자를 말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에서 영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2012 Spelling Bee 대회에 참가한 학생 모두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수상자 및 상세한 내용은 직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제13회 JKS 초등 수영대회

1~3학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수영대회는 학년예선을 거친 108명의 남녀 선수들이 출전했다. 남녀 각 학년별로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등 개인종목과 자유형릴레이부문 단체종목으로 나누어 실력을 겨루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1~3학년 모두 70명의 아동이 수상하였으며 직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제2회 Cilandak Game’ 개최한 JIS

박 용 희 / 한인뉴스 학생기자

10월 25일 자카르타국제학교는 제2회 Cilandak Game을 개최했다. 작년부터 개최된 Cilandak Game은 자카르타국제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운동회다. 학년마다 팀을 이뤄 총 6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이번 Cilandak Game에는 계주, 배너그리기, Amazing Race, 피구, 축구, 줄다리기 등이 종목으로 선정됐다. Banner Painting은 Cilandak Game에서 유일하게 학년 간의 경쟁이 없는 종목이다. 학생들이 그린 배너들은 학교 곳곳에 걸린다. 작년에 참가한 학생들이 그린 배너들은 학교식당에 걸렸다. 계주는 평범한 달리기로만 이뤄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특별한 형태의 달리기로 구성됐다. 한 구간에서는 학생들이 1인 2각으로 달려야 하고, 또 다른 구간에서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업고 달려야 한다. Amazing Race는 외국 텔레비전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하다. Amazing Race라는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제일 먼저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참가자가 승리한다. 학생들은 학교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임무를 수행했다. 축구는 11명이 아니라 7명이 참가하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이 같았다. 줄다리기는 각 학년에서 남자 10명 그리고 여자 10명이 한 팀을 이뤄 다른 학년과 겨뤘다. 각 종목에서 학년이 이길 때마다 점수가 쌓여, 마지막에 점수가 제일 많은 학년이 Cilandak Game에서 우승한다. 올해에는 12학년이 Cilandak Game에서 우승했다. 12학년은 축구, 줄다리기에서 1등을 차지했다. 학교는 1등을 차지한 학년에게 상품이나 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트로피를 수여한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1등을 상징하는 트로피보다 학생들끼리 힘을 합쳐 우승을 이뤘다는 사실이 더욱 값지게 느껴진다.

올해 Cilandak Game은 작년보다 성공적이었다. 작년에는 학생들의 참가가 매우 저조했다. 어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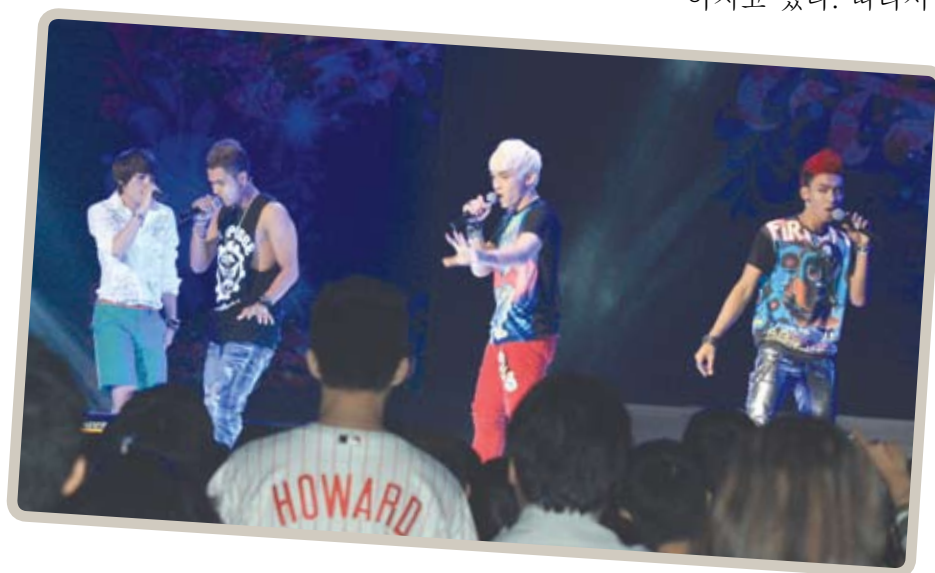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뒤 집으로 갔고, 또 다른 학생들은 학교에 남았지만 참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에는 학생들이 Cilandak Game의 좋은 뜻에 동의하여 활발히 참여했다. Cilandak Game의 목표는 학생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각 학년 간의 sprit을 증진하는 것이다. Cilandak Game 당일에는 학년마다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온다. 12학년은 특권으로 티셔츠를 맞춰 입는다. 학생들이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여러 가지 활동에 참가하면서 학년 간의 관계는 더욱 좋아졌다.

개인적으로 자카르타국제학교는 항상 학교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보다는 개인을 중요시하는 서양의 사고방식 때문에 학생들도 학교, 자신이 속한 학년에게 지지를 보내는 일이 매우 적었다. 그러나 이번 Cilandak Game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뜨거운 열정과 참여는 이제껏 보지 못한 학교를 향한 사랑을 보여줬다. Cilandak Game이 끝난 뒤 학생들은 서로 더욱 더 친근하게 알 것이며, 이것은 학교와 학생들이 화합하는데 좋은 구실을 한다. 내년에도 Cilandak Game은 열릴 것이다. 다음 해에 열릴 Cilandak Game은 올해의 성공을 되짚어 보며 더욱 훌륭한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

갤럭시 슈퍼스타 우승자 Superstar 4 데뷔 쇼케이스

YS미디어(대표 박영수)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제작한 갤럭시 슈퍼스타의 우승자 Superstar 4(이하 S4)의 특별공연이 10월 31일 수요일 스포츠몰 끌라파 가딩에서 4 미닛, 팬텀, Smash(인도네시아 그룹) 등 최정상의 아이돌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실력과 재능, 끼를 인정받아 5,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S4는 4명으로 구성된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지난 3월부터 한국의 레인보우 브릿지 엔터테인먼트에서 스타 트레이닝을 받으며 데뷔를 준비해왔다. 이들의 실력은 한국 스타 트레이닝 커리큘럼을 통해 보다 더 다듬어졌으며, 스타 기본기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한국의 인기 작곡가

김도훈에게 타이틀곡을 받았으며, 최고의 스태프들로 구성된 팀에게 뮤직비디오 촬영, 앨범 제작, 스타일리스트 등을 받아 인도네시아에 부는 한류에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박영수 YS미디어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시작에 불과할 뿐이며,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문화 교류가 보다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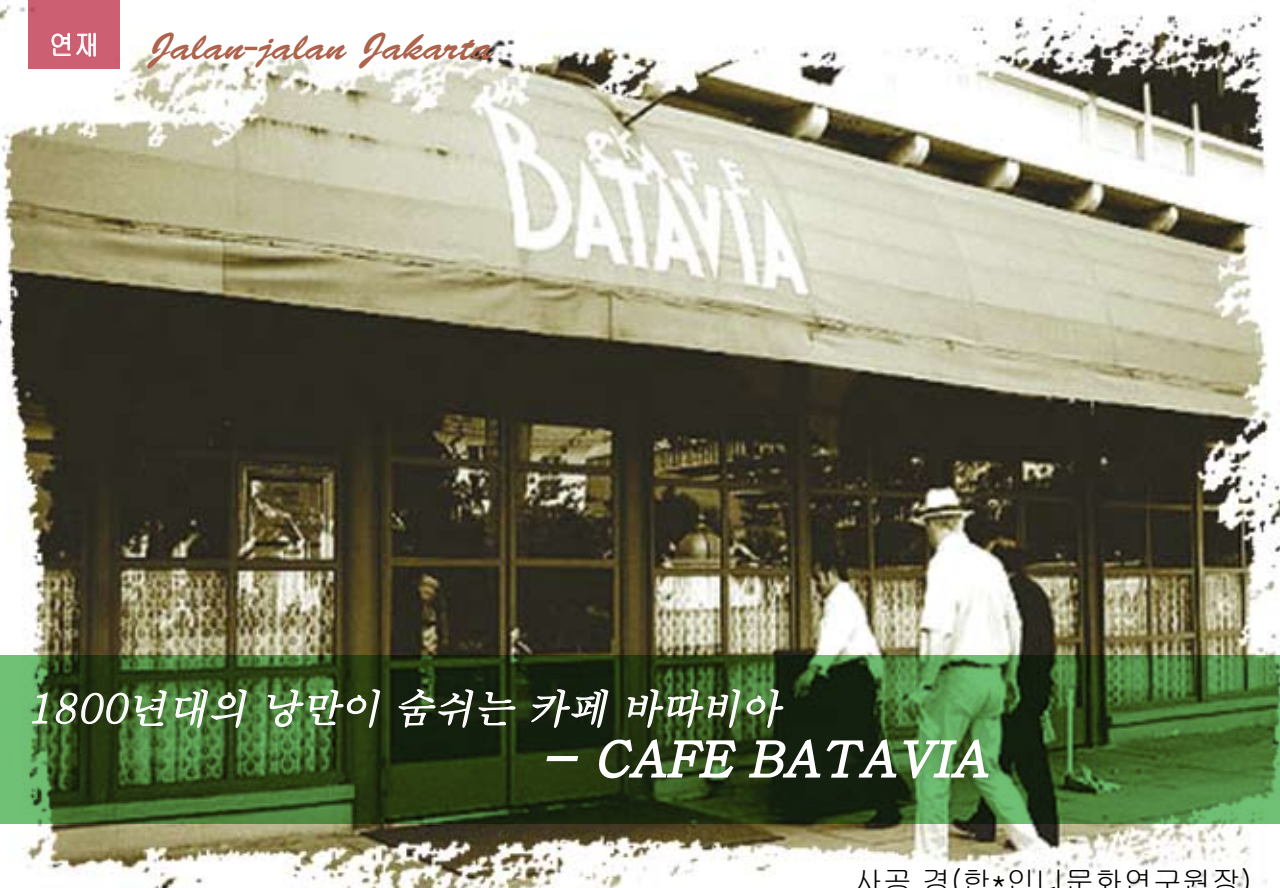
마리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장관은 YS미디어엔터테인먼트 박영수 대표와 만찬석에서 실력이 향상된 S4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교류에 앞장선 YS 미디어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응원을 보낸바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유럽에 이어 또 다른 한류 바람이 불고 있으며, K-POP은 물론 한국어 등도 많은 인기를 모으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까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보다 더 한국

을 알리고, 한국에도 인도네시아를 알려 양국이 국민들이 보다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고, 한국의 스타 양성 시스템을 동남아시아에 널리 알리겠다는 것이 YS미디어엔터테인먼트 박영수 대표의 비전이다.

다양한 문화 사업에서 또 다른 교류의 시작을 알린 갤럭시 슈퍼스타와 S4의 컴백에 양국의 관심이 집중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인 것이다. 그들의 컴백으로 한국의 스타 시스템과 국가 간 문화교류의 힘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1800년대의 낭만이 숨쉬는 카페 바타비아 — CAFE BATAVIA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

파타힐라광장 부근에는 1600년대 초부터 네덜란드 정부가 지은 오래된 건물이 많이 남아 있다. 그 중 하나가 200년 역사를 간직한 Cafe Batavia로 Batavia(옛 자카르타) 시대의 시청(현 역사 박물관) 앞에 위치해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게다가 입구에 있는 초록색 차양에 'CAFE BATAVIA'라고 적혀 있어서 바로 눈에 띈다. 1800년대의 낭만이 숨 쉬고 있는 카페 바타비아는 지금은 옛 영화를 누리지는 못하나 그 흔적들은 찾을 수 있다.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듬은 카페의 바닥과 연륜을 생각하게 하는 무드 있는 음악이 흐르고, 잃어버린 아날로그적 정서가 담긴 이야기가 떠오르는 곳이다.

유럽영화에서나 나올듯한 키 크고 화사한 창문 너머로 막 퍼지기 시작하는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고 있는 서양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카페는 24시간 열려 있으며 밤 11시부터 성시를 이룬다. 외곽 지역에 위치하여서 한 때, IMF 금융위기 시절에는 치안문제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았으나 지

금은 파타힐라 광장의 확장으로 인해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 카페는 1805년과 1850년 사이에 네덜란드 총독 거주지로 설립되었다. 거주지뿐만 아니라 창고와 사무실, 예술 갤러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전체가 자바 티크 나무로 지어진 2층의 그랜드 살롱(Grand Salon)은 1800년대 말에 증축되었다.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있었던 보수공사로 카페 바타비아는 예전의 우아함을 되찾았다. 그 당시에 강철이 건축에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보존성이 뛰어난 유리창도 만들었다. 격자모양의 큰 창문은 카페를 더욱 우아하고 클래식하게 만들고 있다. 마침내 1993년에 호주인 Graham James씨가 이 건물을 구입해 카페 바타비아로 오픈하였다. 발리에서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James씨는 2008년 이 카페를 팔 생각이 있었으나 디스코텍이나 사무실로 운영될까봐 우려되어 팔지 않기로 결심한다. 주인 James씨는 이처럼 카페 바타비아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다.

음악은 흐르는 시간처럼 몽롱하게 카페 바타비아를 맴돈다 탁자 위에 놓인 앙글레, 활짝 핀 꽃송이, 이제 막 피어나려는 꽃송이, 월스에 취해 먼 바다를 노래하며 시린 생맥주를 마시는 주말 저녁.... 지긋이 향기 내뿜는 앙글레, 카페 바타비아....

2층의 시장실(Governors Room)에는 파타힐라 광장의 보존에 힘썼던 자카르타 시장 Ali Sadikin의 커다란 초상화를 포함해 1805년부터 1992년까지의 총독과 시장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함께 장식된 고가구와 틀어놓은 흘러간 음악은 이 방의 클래식한 분위기를 잘 자아낸다. 또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총리인 Winston Churchill의 사진이 걸려 있는 2층의 Churchill Bar는 항상 아름다운 꽃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스탠드바는 뉴스위크(Newsweek)지가 1996년 10월 31일에 ‘세계 최고의 바(The World Best Bar)’로 선정하기도 했다. 2003년에는 ‘Jakarta and Java Kini’ 잡지는 ‘2003년 최고의 바’로 뽑았다. 또 뉴스위크(NEWSWEEK)지 선정 세계 100대 카페에 2차례(1994년과 1996년)나 이름을 올렸고 자바 키니(Java Kini)에서도 2004년에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뽑혔다.

벽에 걸려 있는 전 세계 유명한 인물들의 사진이 이 카페의 특징이다. 1000개 이상의 사진이 카페 벽에 정연하게 걸려 있다. 카페 주인 James씨는 손님들이 세계 일주를 하듯 전 세계 유명 인물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장식하였다고 한다. 모든 사진들이 주인의 개인 수집물이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수카르노 전 대통령의 젊은 모습, 그 유명한 디자이너 하리 다르소노, 2층 계단쪽 벽에 있는 부패의 상징 이멜다 여사, 여성지도자 까르띠니 등 평소 보고 싶었던 많은 이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거꾸로 선 꿈을 반향적 눈빛과 시니컬한 미소로 필자의 사춘기 시절을 먹먹하게 했던 영원한 청춘의 상징 제임스 딘, 그들의 사진을 보며 울컥하는 것은 그것이 추억이고 풍경이고 향수이기 때문이다. 또 재미있는 것은 메뉴를 달라고 하면 액자를 가져다준다. 액자 뒤가 메뉴판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화장실도

유명하다. 퇴폐적이면서도 예술적인 사진이 많이 전시되어 있다. 퇴폐와 예술은 주관적이지만 그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남자 화장실은 앞면이 전신 거울이며 소변을 보고 나면 물이 전신 거울을 통해 내려온다. 1층에는 Live Music이 연주되며 2층은 금연이다.

카페 바타비아는 서양인들이 주로 찾으며 특별한 날에 특별한 차림으로 즐겨 가는 곳이다. 이 카페는 특히 외국학교 학생들에게 자카르타를 떠나면 가장 생각나는 곳으로 꼽히기도 한다. 인도네시아인들이 이 카페에 잘 가지 않는 이유는 음식 값이 비싼데다가 서양 음식과 중국요리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외국 손님 중에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많으며, 그 외에 일본, 영국, 프랑스인들도 즐겨 찾는 곳이다. 또한 카페 앞 파타힐라 광장은 그야말로 시민들의 광장으로 주말에는 항상 붐비는 곳이다. 마술하는 사람, 묘기를 부리는 사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역동적인 동시에 창조적 비약이 가능한 세계가 펼쳐진다.

또 이 광장은 밤에는 신의 영역을 넘는 동성연애자가 많이 모이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우리는 기존의 질서를 뛰어넘는 그들의





심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들의 영혼은 다른 음계에서 흔들리고 있지만 예술과 퇴폐 그리고 미학, 17세기에서 21세기를 넘나드는 카페 바타비아는 다른 나로 존재하는 그들을 포용해 줄 것 같다.

오래된 역사를 간직한 카페답게 귀신에 대한 이야기도 몇 개 들리는가 보다. 한때 귀신이 종업원 차림으로 주문을 받아 갔다하여 다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그때는 정식 종업원은 검은 유니폼인데 귀신은 붉은 유니폼이었다고 한다. 또 카페 바타비아에서 해산물을 먹고 있는 네덜란드 아가씨 귀신 이야기도 있고, 카페 근처에는 네덜란드 군인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키가 큰 남자 귀신도 있다. 이 남자 귀신은 오래된 건물 기둥을 통해서 걸어 다니는데 밤에 카페를 처음 방문한 날 카페 주변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식민지 시절 파타힐라 광장은 고문장소였고 공개 처형이 행해졌던 곳이기도 하다. 고문 받다가 저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많았다, 그렇게 갑자기 혹은 한을 품고 간 사람들이 많은 곳. 낮설어 돌아오

고 싶었지만 운명의 궤도는 착실했다. 경계 밖 자유가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돌아 온 것일까. 하지만 영원히 경계 밖 사람들. 이처럼 피가 고독한 사람은 영혼을 불러내는가 보다.

이처럼 꿈꾸지 못할 것을 꿈꾸게 하는 오래된 카페 바타비아에는 오늘도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가 액자 속의 그들과 함께 흐른다.

Kota Stasiun Jl. Pintu Besar Utara No. 14
Taman Fatahillah, Jakarta
파타힐라 광장(Fatahillah Square) 북쪽에 위치
Telp : 021-6915531 / Fax : 021-6923842

사단법인 한*인니문화연구원 제22회 열린강좌

당신의 행복은 어떤 빛깔입니까?
<행복강좌>에서 나만의 행복을 찾아보세요

- Better Life -

강사 : 최창식 하나은행장
일시 : 2012년 11월 10일(토) 10시-12시

후원 : 하나은행
문의 : (021)7883-9597
soen-id@hotmail.com(팀장)
장소 : 한인성당 맞은편 Graha STK 3층 306호



말림부(Malimbu), 이등병의 편지

김 주 명(시인, 마파람 거주 wnaud0129@hanmail.net)

아홍(牙鴻)님!

님이 롬복으로 오시거든, 우리 말림부로 갑시다. 이래저래 챙겨온 짐들일랑 생기기 어느 호텔에다 두고, 몸만 살짝 말림부 해변에 주저 앉힐까요?

생기기에서 10분이면 도착하는 등 푸른 바다, 그 바다를 지키려 호위병인양 늘어선 야자나무 숲의 끝, 아홍님의 눈썹을 그려다 놓은 듯 한 모래사장, 그 바다를 안고 있는 곳이 말림부랍니다. 아마 발리의 많은 신들도 때론, 사람을 피하고 싶어 그냥 한 팔 쪽 번어 이 곳 말림부를 그려놓지 않았을까요?

내년 3월! 아홍님이 오신다 했죠. 그 3월을 생각하며 저는 늘 말림부에 서성인답니다. 한국을 떠나 올 때您在 챙겨주신 CD 2장, ‘이등병의 편지’가 아직 오지 않은 님을 대신 해 주더이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혼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큰절 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속엔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풀 한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며칠 전, 한 무리의 한국 관광객들이 저희 집을 다녀갔습니다. 그 분들은 롬복에서 살고 있는 한국사람의 집이 보고 싶다고 그랬나봐요. 네! 그러세요. 마파람 시내 관광 마치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직 가져 온 커피믹스가 남아 있어서, 마저 풀었답니다. 잘했죠!

10여 명이 조금 넘게 오셨더라고요. 집 이곳저곳 빈자리에 각자 자리 잡고 준비한 커피믹서를 대접했죠. 취향대로 더운 커피, 냉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는 이어졌답니다. 그러다 어느 한 분이 제게 묻더군요.

“외국생활 하면서 무엇이 없어 제일 불편해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보내 드리리다.”
“네!!?”

무엇이 없어 제일 불편 했을까요, 아홍님?
무엇이 없어 나를 불편하게 할까, 순간 친구가 없어 불편하더이다 하고 하려다,
“감자깍이가 없어 아직 칼로 감자를 깎으니, 그게 제일 불편합니다요.”
하고서는 한바탕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홍님!

롬복에 오니, 이곳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을 전부 프렌드(friend)라 하더군요. 속으로 생각했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정말 친구가 많구나! 그러나 제 친구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왈각 말림부로, 친구 기다리러 갑니다. 풀 한포기 조차 새로운 말림부로.....

친구들아 군대 가면 편지 꼭 해다오
그대들과 즐거웠던 날들을 잊지 않게
열차시간 다가올 때 두 손잡던 뜨거움
기적소리 멀어지면 작아지는 모습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아홍님!

정말 서럽도록 새롭더이다. 두고 온 기타도 서럽고, 고장 나 버린 컴퓨터도 서럽고, 아니 님이 없어 더욱 서럽다 해버리죠. 이참에 서러운 말림부라 할까요?

어제도 말림부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제 입에 꼭 맞는 ABC 믹스커피 한 잔 마시며, 아홍님과 함께 있는 말림부를 미리 그려 놓았습니다. 하늘색으로 푸른 바다위로 비행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필경 롬복으로 오는 비행기가 확실할 것입니다.

3월, 내년이면 그 비행기 안에 님도 덩달아 오시겠죠. 그러면 우리, 덩기덩 둥둥 춤을 출 것입니다. 말림부 등 푸른 바다 위에서.....

짧게 잘린 내 머리가 처음에는 우습다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굳어진다 마음까지
뒷동산에 올라서면 우리 마을 보일런지
나팔소리 고요하게 밤하늘에 퍼지면
이등병의 편지 한 장 고이 접어 보내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사진: 권상욱(디지털아티스트 imaging2000@hamail.net)

속담으로 재미있게! BAHASA INDONESIA

만물을 거두어들이는 달,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 아침에 눈 쌓인 산을 바라보는 달, 셋강 가장자리가 어는 달, 짐승들 속 털 나는 달... 인디언들이 부족마다 이름 지어 부르는 11월의 달 이름입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달 이름 속에 자연의 친구인 그들 모습이 그대로 보이면서 정겹고 편안합니다. 새해에는 나만의 달 이름을 지어보면 어떨까요. 술 안 마시는 달, 많이 웃는 달, 천천히 걷는 달... 이렇게요. 그런 의미에서 11월은 ‘행복한 마무리를 하는 달’로 정해볼까요?

박정자 / 한인뉴스 편집장

1.

Bukit jadi paya, paya jadi bukit. 언덕이 높이 되고, 높이 언덕이 된다, 돌고 도는 세상 잘난 체 하지마라 그런 뜻이군요. 얘기 하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 왕이 보석세공인에게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라고 지시했답니다.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때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절망에 빠졌을 때 다시 힘을 북돋울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어라”, 고민하던 보석세공인은 왕자 솔로몬을 찾아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인간만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전벽해라는 말도 있지요. 언덕이 높이 되고 높이 언덕이 되고 언덕이 높이 되고 높이 언덕이 되고... 끝없이 순환하는 속에서 ‘절대’ 라든가 ‘영원’ 이란 말은 빛을 잃습니다.

단어의 뜻과 예문>

bukit : ① 언덕, 동산, 구릉/ Bukit-bukau(황무지, 황야) ② 산; ③ gunung, pegunungan

jadi : 결과적으로, 따라서, 그러므로, 그 결과; ④ akibatnya, akhirnya, alhasil, kesudahannya, hasilnya, karena itu

paya : 늪, 수렁, 습지; ⑤ rawa, tanah berbencah, becek, tanah berlumpur

2.

Burung membadai di atas langit, merendah diharap jangan. 직역을 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하늘 위에서 새가 폭풍바람을 일으킨다는 말인데 성급한 마음에 차 안에서 뛰어가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합니다. 그렇다 해도 감나무 아래 누워 감 떨어지기만 바라는 것보다야 백번 천번 낫지 않을까요.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단어의 뜻과 예문>

burung : 새; ⑤ unggas/ flu burung(조류독감)

membadai[어근: badai] : 격노하다, 폭풍이 불다; ⑤ mengamuk, menghebat

(di) **atas** : ① ~위에, ~의 꼭대기에(=/bawah)/ Yang tersebut di atas tidak benar.(위에서 언급한 것은 틀렸다)

② 위쪽의, 상류의/ Pintu itu rusak di bagian atas.(그 문은 윗부분이 부서졌다)

③ ~보다 위의/ Ia mendapat peringatan dari atasan bahwa pekerjaannya tidak beres. (그는 상사로부터 일이 서투르다는 주의를 받았다)

④ ~에 대해, ~때문에 / Terima kasih atas undangan ini.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⑤ 위층, 2층

* (di) = 장소(~에) - 단어와 띄어 쓴다.

langit : 하늘, 창공; ㉠angkasa, antariksa

merendah[어근: rendah] : ① 내려가다, 내리다/ Pesawat itu merendah. (비행기가 착륙했다)

② 겸손, 소박/ Wataknya selalu merendah. (그는 늘 겸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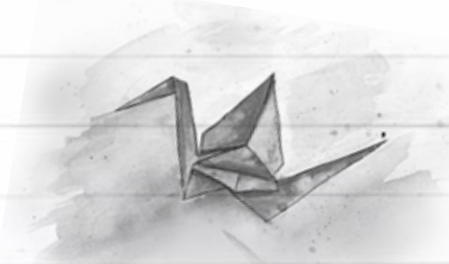
(di)**harap** : ① 요청하다, 바라다; ㉠mohon, minta/ Harap sabar menunggu. (기다려 주기바란다)

② 부디, 제발; ㉠ingin, percaya, rindu/ HP harap dimatikan. (휴대전화를 꺼주세요), Harap lekas datang ke kantor saya. (제 사무실로 빨리 와주십시오)

* (di) 수동태(~에 의해 당하다, 받다) - 단어에 붙여 쓴다.

jangan : ① ~하지 않다

② ~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tidak boleh, tidak dibenarkan, hindarkan/ Jangan bohong. (거짓말하지마라), jangan main-main. (농담하지마라)



3.

Dua wanita adalah warung, tiga wanita adalah pasar. 여자 둘이 모이면 와룽(상점)이 되고 여자 셋이 모이면 시장이 된다는군요. 이 속담이, 여자들이 모이면 주변이 시끄러워진다는 뜻으로 쓰였다는 점에 이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동의를 구합니다. 여자들, 정말 생활력 강하지 않습니까. 상점과 시장이 다 여자들의 손아귀에 떨어졌습니다.

penuh semangat dong! (힘내세요!)

단어의 뜻과 예문>

dua : 둘, 2, 두 개

dua kali 두 번, dua kali lipat 두 배, dua-duanya 둘 다

Harga barang-barang naik dua kali lipat. (물건 값이 두 배나 올랐다)

wanita : 여성, 여자; ㉠perempuan/ kaum wanita 여성들(단체)

wanita pelayan toko 여점원, wanita hamil 임산부

adalah : ① 있다, 이었다; ㉠ada/ Ada(lah) seorang pedagang besar yang amat kaya berdiam di tepi sebuah sungai. (아주 부유한 상인이 강변에서 살고 있었다.)

② ~이다 ㉠ialah/ Berita itu adalah isapan jempol belaka. (그 소식은 전부 날조된 것이다)

warung : 노점, 가게, 상점; ㉠kedai, lepau, toko

tiga : 셋, 3, 세 개

pasar : ① 시장(市場); ㉠pekan

② 거래, 상거래, 거래시장

pasar amal 자선(모금)을 위한 바자회, pasar gelap 암시장, pasar malam 야시장



오랜만에 만나는 가을 앞에서...

서미숙 / 수필가 gaeunsuh@hanmail.net

잎을 서서히 날려 보내고 가지만 무성히 남게 될 가을 나무 숲속 산길을 걷는다. 한참만에야 올라 보는 오솔길엔 벌써 구멍이 숭숭 뚫린 낙엽들이 소복이 쌓여 스산함을 준다. 얼마 전만 해도 싱그러운 모습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잎을 다 떨어뜨리고 무성했던 잎들로 신록을 자랑하던 화려함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소년기를 지나 청년기에서 왕성한 시기를 보낸 나무들은 긴 동면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 나무 사이사이로 춤을 추듯 흔들리는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인다. 가을 하늘처럼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첼로음악이 구성진 가락이 되어 가슴을 울린다.

첼로의 음역은 인간의 심성과 가장 비슷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어폰음악으로 다운받아 자주 듣게 되는데 특별한 감흥을 불러내는 묘한 매력이 있다. ‘카사도’의 멜로디가 지금 이곳 가을을 만나는 분위기에서 듣기로는 너무도 잘 어울리는 것 같다. 한발 두발 옮길 때마다 바삭바삭 밟길에 낙엽이 부서지는 소리에 가슴이 싸하게 울림이 오니 말이다.

낙엽은 밟히고 부서져 내년에 다시 만날 봄을 기약하는 새순을 위해서 썩게 되겠지만 모든 만물은 그렇게 조화롭고 이치가 합당하게 만들어 졌다. 신이 내린 선물이랄까.

산인들의 행렬이 줄을 잇는다. 조금 있으면 떠나게 될 가을이라 비바람에 퇴색된 벤치에 앉으니 찬 기운이 스민다. 하늘을 올려다본다. 온 사방에 서있는 나무들을 본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는 모습들이다. 이 자연에 비하면 인간은 참으로 보잘 것 없는 작은 존재임을 새롭게 깨닫는다. 죽은 가지에서 다시 새잎을 틔우고 자연의 순리에 그저 묵묵히 순응하는 나무들, 부드러운 부엽토 사이로 살며시 새순이 트일 시기를 기다려 인내하는 나뭇의 우직함을 닮고 싶다. 살아오는 동안 오만했던 자신과 큰 착각 속에서 살게 되는 인간의 삶을 새삼 돌이켜보게 한다. 시원한 바람이 불을 스치며 얼마 남아있지 않은 나뭇잎마저 또 다시 날려 보낸다. 그렇게 흩어지는 나뭇잎들 사이에서 나는 내 인생의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양상하게 서 있게 될 나무들을 보고 있자니 영화에서 본 어느 연인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사랑하는 이들의 숨결과 눈빛은 파란 녹색의 정원을 키우고, 두 사람이 엮어내는 호흡은 죽어가는 생명까지도 소생시키는 힘이 있다. 산을 오르는 활기찬 사람들의 발소리에 산은 수련거린다. 비록 나목일지라도 사람들의 숨결이 반갑고 또 다시 찾아올 소생의 계절을 기다리는 희망이 있기 때문일까. 언뜻 시야를 돌아보니 젊은 두 남녀가 손을 잡고 산을 오르고 있다. 나무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들을 바라보는 내 심장도 무엇인가 몽클 용솟음친다. 아마도 젊음이 뿜어주는 신선한 기운 때문 일거다.

어느 책에선가 ‘육체의 성장은 청년기에 들어선 20대 초반에서 멈추지만, 영혼은 평생 동안 끊임 없이 성장 한다고 한다. 사랑의 완성은 50대까지이며 그때부터는 자신보다 타인을 돌아보는 시각이 발달하며 삶의 완성을 준비한다고 한다. 나목들이 그러하다. 젊은 남녀의 발걸음이 사뭇사뭇 무척 가벼워 보인다. 아름답고 싱싱한 젊은이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적잖이 많다. 그들의 영혼은 나비처럼 어디든지 날아 앉고 날아갈 수 있다. 성숙기를 맞아 보금자리를 틀고 퇴색한 세월에 새 물감을 칠하면서 미래를 설계해 간다. 그들의 인생이 나목처럼 순응하며 겸허한 자세로 인생을 열어가길 바라본다. 언제부터인가 지하철을 타면 노약자석을 아예 비워두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 흐뭇한 풍경이다. 그들은 도리와 예를 아는 이들이다. 노인이 서 있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으며 잠을 청하고 있던 젊은이들이 많았었는데..... 멀리서 바라보아도 얼굴이 달아오르고 미안스러운 마음이 들곤 했었다.

그들이 대견하다. 비워둔 자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다리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다. 어떤 이를 위해 자리를 비워 두는 이는 사랑을 느끼는 가슴이 있다. 이들은 인생을 조각해 가면서 최종 완성이까지 많은 실수도 거듭하겠지만 차츰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터득하게 될 것이다. 어린 나무에 파란 이파리들이 돌아나 큰 잎이 될 때까지 꺾어야 하는 온갖 병충해, 비바람에 몸이 꺾이고 가을 낙엽이 되

어 사그라질 때까지 감내하는 나목들의 품새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살랑거리는 미풍에 날리던 가을 잎은 부끄러운 듯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다. 아니 머리를 숙이고 반갑게 맞아주는 느낌이다. 그 자연의 몸짓에 어쩐지 마음이 끌림은 인지상정일까.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어버린 모양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려면 역시 고분고분하고 불일이다. 나도 그 자연 속에 안겼다.

“왜 혼자 오셨어요?” 옆의 등산객에게 사진을 한 장 찍어 달라고 부탁 했더니 스마트폰을 받아 들며 물어 본다. “네, 가을을 만나려고 혼자 조용히 왔답니다” 하고 대답하려다가 그만 두었다. 해외에 하도 오래 살아서 가을날 우는 억새를 보지 못해 허전하고 서운했지만 하얀 억새의 미소를 보고 나도 한동안 잃어버린 미소를 찾았으니 가을 산행은 나에게 또 다른 희망과 보람을 안겨준 셈이다. 내가 주는 만큼 주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내 마음속의 억새는 미소를 잃지 않으리라. 마음이 슬플 때도 음악을 슬프게 연주하지 않는 음악가처럼 아픔을 안고 있으면서도 울음을 참고 미소를 보여주는 억새에게서 따스한 정을 느낀다. 인생의 가을이 주는 느낌일까.

생명이 있음에 감사해야 함을 이따금 잊고 지내는 때가 많다. 화사하게 물든 단풍들, 그 옷을 벗어버리고 빈 몸으로 서 있게 될 나무들을 바라보며 살아온 발자취를 되돌아볼 때에야 비로소 그 귀함을 알게 되는가 보다.

오랜만에 만난 고국의 가을 앞에서 먼 훗날 생의 완성을 하게 될 내 모습을 반추해 본다. 차디찬 이성(理性)으로 나를 꽉 채우고 싶던 젊은 날들이 있었다. 팽팽한 긴장이 곧 삶 인줄 알고 조바심치며 살아온 날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험잡고 느슨해지고 싶다.

어차피 인생은 채워지지 않는 그릇 같은 것. 완벽을 향해 달리던 무모한 정열은 이제 그만 접고 가뭇이 앉아 모자람이 주는 넉넉함의 의미를 헤아려 보고 싶다. 다 비워내고 다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가을처럼.....

재단법인법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들의 비영리 분야 공익 재단법인 설립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종교 분야에서 헌신하는 적지 않은 동포들이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재단법인(Yayasan)을 설립하고 본인이 설립한 Yayasan명으로 본인의 인도네시아 거주 및 사역의 법률적인 스폰서로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동산도 Yayasan 명의로 등기하여 현지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Yayasan 제도는 비영리 목적으로 종교 분야, 교육 분야, 사회 분야, 체육 분야, 예술 분야, 문화 분야, 의료 분야 등에서 한인 동포 혹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현지 제도에 맞게 조직을 만들고 현지법에 따라 활동하며 현지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에서 법정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임무를 수행하는데도 회사 명의로 하는 것 보다는 Yayasan을 설립하여 Yayasan 명의로 지역사회 발전지원, 장학금 지원, 노약자 지원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Yayasan을 설립하기 전에 Yayasan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법 기준에 맞춰 Yayasan을 설립하고 Yayasan 운영도 Yayasan법을 이해하고 법정 기준대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1. Yayasan의 본질

재단법인이란 사회, 종교, 자선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바쳐진 재산으로 설립되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인 자격 승인을 얻은 주인이 없는 집단을 말한다. 재단법인에서는 어느 누구의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주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집단, 즉, 사단법인과 대조되는 집단이다.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단이며,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빠르다. 사단법인은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사단법인이 있다. 그러나 통상 사단법인하면 비영리 단체 사단법인으로 쓰여지고 있으나 재단법인은 100% 비영리 법인이다. 그러나 Yayasan법은 Yayasan의 자산의 25% 범위 내에서 영리단체에 출자는 허용하고 있으며, Yayasan의 영리 추구를 위한 직접 상행위는 금하고 있으며, Yayasan 설립인이나 정관에 등재된 임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익배당을 엄하게 금하고 있다. 이는 Yayasan이 Yayasan의 본질대로 비영리 공익을 위한 단체로 존재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Orde Baru 정권 시절 Yayasan이 특정 정치

인들에게 부정 축재의 수단으로 쓰여지는 일이 반복되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의지의 표현이다.

2. Yayasan의 활동이 가능한 분야

비영리 모든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학교, 교회, 선교단체, 병원,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체육 분야, 직업훈련원, 학원, 아파트 입주자 조합, 사회단체, 학술단체, 취미단체, 업종별 조합, 종친회, 향우회, 동문회, 직원 상조회 장학회 등 거의 모든 비영리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3. 외국인의 Yayasan 설립 가능 여부

Yayasan법 제9조 1항과 5항에 의하면 외국인(자연인 혹은 법인) 단독으로 혹은 내국인(자연인 혹은 법인)과 함께 공동으로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에 관한 사항을 별도 정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상당한 수의 공증인들이(특히 지방 공증인들)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를 왕왕 거부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견해이며, 인도네시아 거주중인 외국인이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Yayasan 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배타적인 인도네시아의 현실, 특히 인허가를 내주는 관공서의 배타적인 관료주의를 감안하여 외국인 단독으로 Yayasan을 설립하는 것 보다는 내국인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Yayasan법이나 교육법에 외국인의 Yayasan 대표 취임을 금한다는 규정이 없으나 외국인을 교육기관이 있는 Yayasan의 대표로 하여 교육 기관 허가 신청을 하면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4. Yayasan 설립 법정 최소 인원

법에 의하면 1인(자연인 혹은 법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사망자의 유언에 의해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죽기 전에 “내 유산으로 장학 재단 혹은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운영하는 사회사업 재단을 만들어 달라” 고 유언하면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이 고인의 뜻을 따라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1인 설립자가 문제되지 않으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공동 설립이 필요하다.

5. Yayasan의 조직

Yayasan을 설립한 설립인(Pendiri)은 Yayasan 설립과 동시에 임무가 완료되며 Yayasan에 대하여 여하한 권리나 의무가 없다. Yayasan의 조직은 지도위원(Pembina), 운영위원(Pengurus)와 감사위원(Pengawas)이며, 운영위원은 한 사람이 아니고 운영위원장(Ketua), 서기(Sekretaris) 및 회계(Bendahara) 이상 최소 3명이어야 한다. 따라서 Yayasan의 법정 최소 임원의 인원은 지도위원 1명, 운영위원 3명 및 감사위원 1명, 이상 5명이며, Yayasan의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위원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6. 지도위원

6.1. 지도위원의 직무

6.1.1. Yayasan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운영위원 및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 정관 개정, 기본정책 결정, 연간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합병 혹은 해산을 결정한다.

6.1.2. Yayasan의 재산 양도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6.1.3. 운영위원 혹은 감사위원에게 속하지 않은 Yayasan의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6.1.4. 매년 최소 1회 이상 지도위원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지난 1년 동안의 자산, 권리 및 의무사항을 검토 평가하여 다음 해의 정책 기본 자료로 삼는다.

6.2. 지도위원 선출 방법

6.2.1. 설립인은 자동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있다.

6.2.2. 지도위원회에서 Yayasan에 기여가 많은 자라고 평가된 자로서 지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6.2.3. 여하한 이유에 의하던지 지도위원이 1명도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공동회의에서 지도위원을 선임한다.

6.3. 지도위원의 인원

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나 Yayasan의 본질이 비영리 단체임을 감안하여 한 사람의 전횡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며,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홀수 인원으로 3-5명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6.4. 외국인의 지도위원 등재 자격

기한부 거부허가(KITAS) 혹은 거주허가서(KITAP) 보유자로서 외국인 고용허가서(IMTA) 같은 활동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도위원으로 등재를 불허하고 있다(중전에는 허용).

7. 운영위원

7.1. 운영위원의 최소 인원 및 임기

7.1.1. 운영위원장 1명, 서기 1명 및 회계 1명은 법정 최소 인원이며,

7.1.2. 필요에 따라 부운영위원장, 부서기, 부회계 등을 둘 수 있다.

7.1.3. 운영위원은 지도위원회에서 선임 혹은 해임한다

7.1.4. 운영위원의 법정 임기는 5년이나 지도위원회에서 다르게 조정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원의 연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7.1.5. 지도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 운영위원이 Yayasan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시에는, 운영위원의 임기에 관계없이 지도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을 하더라도 해임할 수 있다.

7.2. 운영위원의 직무 및 책임

7.2.1. 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 Yayasan의 기본 정책에 따라 Yayasan을 운영한다.

7.2.2. 운영위원이 Yayasan을 여하한 형태의 지급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금한다.

7.2.3. Yayasan의 재산 양도는 반드시 지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7.2.4. 운영위원이 제삼자의 유익을 위하여 Yayasan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금한다.

7.2.5. Yayasan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인자격을 얻기 전에 운영위원이 Yayasan명으로 행한 모든 법률행위에 대하여 모든 운영위원(운영위원장, 서기 및 회계)이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진다.

7.2.6. Yayasan의 지도위원, 운영위원, 감사위원 혹은 Yayasan의 직원과 관련이 있는 여하한 단체와 여하한 계약이라도 체결을 금한다.

7.2.7. 년례 보고서에 허위 혹은 숨긴 사실이 발견되면 운영위원 전원은 연대책임을 진다.

7.2.8. Yayasan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 귀책사유가 운영위원에게 있을 때에는 모든 운영위원은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책임을 진다.

7.2.9.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사회 혹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운영위원은 확정판결문 발효일로부터 5년 동안 다른 Yayasan의 운영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7.3. 운영위원 개선 시는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새 운영위원의 성명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4. 외국인의 운영위원 등재 자격

기한부 거부허가(KITAS) 혹은 거주허가서(KITAP) 보유자로서 외국인 고용허가서(IMTA) 같은 활동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운영위원으로 등재를 불허하고 있다.

8. 감사위원

8.1. 감사위원의 직무 및 책임

8.1.1. 운영위원의 Yayasan 운영을 감시, 감독, 감사하며 조언한다.

8.1.2. 감사위원은 정당한 이유를 들어 운영위원을 하더라도 임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을 임시 해임 시에는 감사위원은 임시 해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도위원회에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지도위원회는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임 확정 혹은 임시 해임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8.1.3. 년례 보고서에 허위 혹은 숨긴 사실이 발견되면 모든 감사위원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8.1.4. Yayasan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의 귀책사유가 감사위원에게 있을 때에는 모든 감사위원은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8.1.5.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사회 혹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감사위원은 확정판결문의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Yayasan의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8.2. 감사위원 개선 시 보고 의무
감사위원 개선 시에는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8.3. 감사위원의 인원 및 임기
8.3.1. 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나 한 사람의 전횡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며,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하여 홀수인원으로 3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8.3.2. 임기는 5년이나 지도위원회에서 하시라도 해임이 가능하며 연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8.4. 외국인의 감사위원 등재 자격
기한부 거주허가(KITAS) 혹은 거주허가서(KITAP) 보유자로서 외국인 고용허가서(IMTA) 같은 활동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감사위원으로 등재를 불허하고 있다.

9. 겸직 금지 원칙

9.1. 어떠한 이유라도 한 사람이 지도위원, 운영위원 혹은 감사위원에 겸직을 금하며, 1인 1직 원칙을 지켜야 한다.
9.2.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위원은 Yayasan에서 출자하거나 설립한 사업체의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10. 재산 양도, 급여 혹은 사례비 지급금지

10.1. Yayasan의 재산(현금, 동산, 부동산, 무형자산, 유형자산)을 직접적인 방법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급여, 사례비 혹은 금전으로 계산이 가능한 여하한 형태로도 지도위원, 운영위원 혹은 감사위원에게 양도 혹은 지급하는 것을 금한다.
10.2. 그러나 예외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운영

위원에게는 급여 혹은 사례비 지급을 Yayasan의 정관에 등재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Yayasan의 설립인이 아니며, 설립인, 지도위원 혹은 감사위원과 관계가 없는 자로써 직접 상근자인 운영위원(비상근 혹은 Part time 운영위원)에게는 지급을 금한다), 급여 혹은 사례금에 관한 사항을 지도위원회에서 정하고 결정된 사항이 정관에 등재된 자.

11. 연례보고서 작성, 보고 및 공개 의무

11.1. 운영위원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늦어도 5개월 이내에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 모든 운영위원과 모든 감사위원은 반드시 연례 보고서에 서명해야 한다.
11.2. 연례 보고서를 Yayasan의 게시판에 부착 공고하여야 한다.
11.3.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Yayasan은 연례 보고서 중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 표준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 소견서를 부쳐야 하며,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어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무보고서를 지도위원에게 제출하고, 재무보고서 사본을 법무부 장관 및 관련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11.3.1. 한 회계연도에 국가, 외국 혹은 제삼자로부터 5억 Rupiah 이상의 지원을 받은 Yayasan,
11.3.2. 공익목적으로 기증받은 재산 (“예” 사원, 교회, 묘지 등)이외에 200억 Rupiah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Yayasan.

12. 형사 처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징역 최고 5년에 처한다.
12.1. Yayasan의 재산을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급여, 사례금 혹은 다른 형태로 설립인, 지도위원, 감사위원과 관계가 있는 운영위원 혹은 비상근이나 Part Timer 운영위원, 혹은 감사위원에게 주거나 받은 자.
12.2. 상기 급여, 사례금 혹은 다른 형태의 지급금에 관한 사항을 Yayasan의 정관에 등재하지 않고 지급하거나 받은 자.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진출

10.19(금) 새벽 (뉴욕 시간 10.18(목)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2013~14년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3개국이 참여했으며, 우리나라는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49표의 지지를 얻어 아주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되었다. (1차투표 결과: 한국 116, 캄보디아 62, 부탄 20, 2차 투표 결과: 한국 149, 캄보디아 43)

한국이 지난 1996~1997년 첫 번째 임기를 마친 이후 15년 만에 두 번째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재진출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내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2년간 유엔 최고 기구인 안보리에서 다시 활동하게 되었다.

이번 비상임이사국 진출로 한국은 유엔 최고기구에서 진행되는 한반도문제 등의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남북한 불안정성 등 유동적인 한반도문제에도 직접 관여하게 된다. 특히 안보리 결정사항은 유엔 회원국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가장 강력한 유엔기구로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당시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한국은 지난 1996~1997년 첫 번째 임기를 마친 이후 15년 만에 두 번째 진출하게 됨으로써 외교의 폭이 한층 넓어진 가운데, 영토 및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의 증진에도 한국의 역할이 일정부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이 안보리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넘어서는 의견 표명과 역할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안보리 재진출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유엔 분담금 및 평화유지군(PKO) 파병을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의 안보리 진출은 신장된 국력과 함께,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을 통한 국제평화 및 안보 분야의 기여 실적과 기여 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하며, '91년 유엔 가입 후 2001년 총회 의장국 선출, 2006년 한국인 유엔사무총장 선출과 2011년 사무총장 재선 등으로 제고된 유엔외교 분야에서 한국의 높은 위상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 안보리는 총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상임 이사국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비상임 이사국은 2년 임기로 매년 5개국이 번갈아 선출된다. 이번에 한국과 같은 임기로 진출하게 된 국가는 호주, 르완다,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이다.

유엔 안보리는 총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상임 이사국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비상임 이사국은 2년 임기로 매년 5개국이 번갈아 선출된다. 이번에 한국과 같은 임기로 진출하게 된 국가는 호주, 르완다,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이다. ●●

부끄러운 초상 이 효은(자카르타 거주)



이어진 마지막 질문에서 나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것은 ‘우리가 K팝을 알듯이, 한국사람들도 우리의 콘텐츠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라는 것이었는데, 머릿속으로 영화, 드라마, 노래들을 급히 떠올려봤지만 결국 건진 건 없었다. 무심코 ‘글쎄요. 뭐가 있죠?’라고 하자, 여기저기서 실망하는 아우들이 터져나왔다. 쟁쟁, 단 한 개도 기억이 안 나다니..

‘땡땡’ 휴대폰에서 문자 알리미 소리가 났다. ‘모시야, 잘 지냈어? 오늘은 이둘피뜨리(Idul Fitri)야. 그동안 내 말과 행동에 실수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주길 바래.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 내 현지인 친구 Ari에게서 온 문자였다.

아참! 오늘이 인도네시아 최대명절인 ‘이둘 피뜨리’지. 한 달간의 금식기간(라마단)이 끝난 후 만끽하는 이틀 간의 짧은 축제. 한 달이나 기다려 맞게 된 가장 성스런 명절에 주변 지인들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빠듯할 텐데... 외국인인 내게도 잊지 않고 명절 인사를 보내온 친구가 고마웠다. 성의껏 답장을 보내면서 새삼 우리가 함께해 온 시간들이 떠올랐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인니에 오게 된 나는, 이곳의 낯선 환경과 더불어 갑자기 불어난 개인시간들을 주체하지 못해 무척 심심해하고 있었다. 내게 말벗을 만들어주려는 남편의 권유로 방문 영어과외를 신청했고 우이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아리를 만나게 되었다.

이후 두어 달쯤 지난 어느 토요일, 우연히 나는 아리가 일하는 어학원에서 한국문화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다. 처음 아리에게 제안을 받았을 때는 소규모 그룹발표 정도로 생각하고 흔쾌히 수락했었다. 학원 정규수업이 아닌, 아리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특별수업인데다 금쪽같은 토요일에 하는데 아무렴 몇 명이나 오겠나 싶었던 것이다. 아리는 학생들이 K-pop에 관심이 많다면 문화컨텐츠를 중심으로 발표해도 좋겠다고 조언해주었다. 학원 측에서 노트북과 프레젠테이션, 강의실과 마이크, 스피커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간단한 다

과도 제공해주기로 했다. 허걱, 간단한 발표가 아니었던가? 싶은 마음이 들지만,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에게 간단히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지나친 부담은 떨쳐내기로 했다.

내가 사는 자카르타에서 외곽 브카시까지 차로 1시간 20분을 가면서 대본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럼에도 영어대본이라 잘 외워지지 않았다. 결혼할 때 맞췄던 색동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건물에 들어서니 학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모아졌다. 빈 강의실에서 혼자 발표준비를 하고 있는데 청소하는 아줌마가 다가와서 도너츠를 건넸다.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 동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있었다며 사양하지 말아달라고 한다. 저 이 학원 오늘 처음 오는데요... 라고 내 얼굴에 써 있었나 보다. 서먹해하는 내 손에 몇 개 안 남은 귀한 도너츠를 쥐어주는 아줌마에게서 온기가 느껴졌다. 떨려서 아침도 못 먹고 나왔는데 이게 웬 황제!

발표준비를 마치니 학생들이 한 명, 두 명 들어오는데 40명이 넘는 청중으로 인해 강의실에 빈자리가 없게 되었다. 학생들의 나이대도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취업준비생, 학원강사들, 그리고 할머니까지 다양했다. 학원 관계자와 비디오 촬영기사까지 내려왔다. 범상치않은 분위기에 대해 아리에게 묻자, 내가 이 어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첫번째 외국인이기에 학원측에서 영상으로 담아 DVD로 보관할 것이며 답례품도 준비했다는 것이다.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들자, 학생들이 내게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 후 ‘사랑해요’라고 말해줬다. 내가 오기 전에 아리가 몇 가지 한국어를 가르쳤던 모양이다. 덕분에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고, 자신감을 얻는 나는 곧바로 한국에 대

제3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공모전시상식 12월 4일(화), 4:00~9:00

* 4:00-5:30 바둑 실습 * 5:30-6:30 저녁식사 * 6:30-9:00 문화행사로 진행되는 시상식

PENDOPO KEMANG Res. Jl. Kemang Selatan No. 111, Jak. Sel.

Tel. (021) 7183731, 0817-870-108

해 하나 둘씩 소개해나갔다. 전세계에서 불고있는 K-pop커버댄스 열풍, 대표음식 김치를 비롯해서 패션의 거리 명동과 동대문, 아름다운 섬 제주도, 분단국가인 한국의 역사, 그리고 세계 유수영화제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들.

1시간가량의 발표동안 다소 지루한 기류가 없지 않았는데, 막상 질문시간이 되자 한국에 대한 인도네시아인들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K-pop이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7대 자연경관에 뽑힌 제주도 같은 유명한 명소가 또 있나요’, ‘한국에는 음식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무엇이 있나요’, ‘김치도 삼발처럼 지역마다 맛이 다르나요’, ‘서울에는 어떤 문화가 있나요’, ‘분단국가인 한국은 통일을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등 예상과 다른 질문들이었다. 일전에 학생들이 K-pop을 좋아한다는 얘길 들었던 터라, 나의 예상 질문지는 ‘슈퍼주니어의 근황’이니 ‘K-pop의 역사’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한국을 단 한번도 방문해본 적이 없는 그들이 알고 싶은 건, 실제 한국의 모습과 현대문화였다. 이를테면 발표 초입에서 나는 한국의 활발한 커피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한 TV프로그램 영상을 보여줬는데 다들 흥미로워했다. 작년에 방영된 SBS스페셜 ‘커피 앤 더 시티’는 커피홀릭이 된 한국사회를 조명했는데, 전세계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하면서 일명 ‘스타벅스 사나이’로 유명해진 한 남자가 특별 VJ로 출연하여 ‘한국처럼 열광적인 커피문화를 가진 나라는 처음 본다’며 놀라움을 금치못해 화제가 되었던 프로그램이었다. 강의 진행을 맡은 아리도 ‘정말이냐? 나도 한국엘 가보고 싶다’며 큰 호감을 드러냈다.

언젠가는 한국에 가보고 싶은 그들은 독특한 거리의 풍경, 재미있는 한국 문화, 아름다운 바다 등 한국이 가진 특별한 모습들을 듣고 마음껏 상상의 나

래를 펼쳐보고 싶었던 것 같다. 아뿔싸! 그런 줄도 모르고 새로운 것 없는 한류 소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 버렸구나! 인도네시아 인들이 K-pop을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K-pop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할 거라고 쉽게 단정해 놓은 대단한 착각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질문에서 나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것은 ‘우리가 K팝을 알듯이, 한국사람들도 우리의 콘텐츠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라는 것이었는데, 머릿속으로 영화, 드라마, 노래들을 급히 떠올려봤지만 결국 건진 건 없었다. 무심코 ‘글쎄요. 뭐가 있죠?’라고 하자, 여기저기서 실망하는 아우들이 터져나왔다. 쟈장, 단 한 개도 기억이 안 나다니..

그들은 드라마 ‘폴하우스’, 그룹 ‘슈퍼주니어’로 대표되는 한국컨텐츠들을 즐기고 삼성 TV, 엘지 에어컨, 뚜레쥬르 등 한국 상품들에 긍정적이며, 심지어 아리는 내 집에 올 때 자국의 수많은 커피브랜드들을 제치고 롯데의 커피계열사인 ‘엔제리너스 커피’를 한 잔씩 사서 오곤 했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한국을 알아가는 데 반해 나는 인도네시아를 그저 스쳐가는 가벼운 인연처럼 대해왔던 것 같아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가슴을 파고들어왔다. 다행히 아리가 ‘인도네시아 콘텐츠도 얼른 분발해서 K-pop처럼 유명해지자’며 청중들을 달래주었다.

발표를 마치고 포토타임이 되자, 조금 전의 서운함은 온데간데없어지고 그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한국인과 사진 찍고 싶어 안달이 난 모습들이었다. 저마다 하트와 V자를 마구 날려가며 수 십장의 사진을 찍고 나니 좀더 친해진 느낌이었다. 요즘 한국기업들도 인니에 진출을 많이 하는 추세이고,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인도네시아어 공부열풍이 불고있다고 했더니 치골이 다 드러나도록 함박웃음을 지어 보인다. 다음을 기약하며 악수와 뜨거운 포옹으로 관계를 만회(?)하고 강의실을 나왔다.

인니 생활 초년에 겪은 이 안타까운 사건 이후로 내 생활에 적잖은 변화가 생겼다. UI 어학과정(BIPA)에 등록을 하고, 국립박물관 투어를 가고, 블로그를 개설하여 인도네시아 여행일지도 쓰기 시작했다. 쓴 글을 열심히 SNS로 공유하던 즈음 나의 한 친구가 배낭여행 중에 돌연 행로를 바꾸어 인도네시아에 방문해준 것은 여행일지의 값진 수확이었다고 자찬도 해본다.

그럼에도 트라우마처럼 남겨진 안타까운 기억을 치유하는 일은 좀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인도네시아의 소녀시대라 불리는 걸그룹 ‘체리벨(cherrybelle)’의 노래를 들으며 흥겹게 글을 쓰는 지금처럼, 내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인도네시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천천히 사귀어가고 싶다.



수 상 소 감

자성하는 마음으로 써내려간 저의 소박한 글에, 생각지도 못했던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신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곳 문화에 섞이려 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만 만나고, 한국문화만을 고수하며 자칫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아갈 뻔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양심을 찌르는 충격(!)을 주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 준 인도네시아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연애가 그러하듯, 문화교류도 쌍방향이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한*인니문화연구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상자 및 수상작 발표

구 분	일 반 부		학 생 부	
	이 름	제 목	이 름	제 목
대 상 재인니한국대사상	이 효 은	부끄러운 초상		
최우수상 재인니한인회장상	고 사 순	자카르타 상경기	장 한 솔 Santa Maria 12학년	인도네시아 학교교육문화
우수상 연구원 이사장상	김 동 결	웃음이 절로 난다 (시)	이 요 한 JIKS 10학년	따스한 사람들
우수상 한국문화원장상	이 채 민	코이카 생활기	장 인 우 Pelita Harapan 10학년	루마자와, 잠든 인도 네시아를 깨우는 곳
우수상 연구원장상	이 강 락	멀리의 인생 열차	김 유 리 GMIS 11학년	인도네시아, 그리고 선택의 길
특별상 재인니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상	고 은 희	풍요로움 뒤의 허전함	이 건 JIKS 11학년	나의 칼리만탄 답사기
특별상 JIKS 교장상	이 인 상	큰 승방터전의 보로부두르 (시)	김 지 수 JIS 11학년	나를 돌아보게 하는 레몬향기
장려상 연구원상	이 태 복	자바엔 전설이 있다 (시)	박 용 희 JIS 12학년	고아원을 다녀온 뒤
	조 갑 속	자카르타의 여명 (시)		
	이 정 희	인 연		

서로 돕는 한인사회 · 서로 믿는 한인사회 · 발전 하는 한인사회



아름다운 공동체
인도네시아 한인회

2012년 한인회 임원 찬조금

번 호	직 책	성 명	회 사 명	납입 연도	금 액(\$)
1	한인회 회장	승 은 호	KORINDO GROUP	2012	20,000
2	한인회 수석 부회장	신 기 업	PT. HANINDO EXPRESS UTAMA	2012	10,000
3	한인회 수석 부회장	조 규 철	PT. DONG JUNG INDONESIA	2012	10,000
4	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	송 창 근	KMK GROUP	2012	9,980
5	한인회 부회장	강 희 중	PT. SUNG TECHNOLOGY	2012	5,000
6	한인회 부회장	김 주 철	PT. STARCAMTEX	2012	5,000
7	한인회 부회장	배 도 운	PT. DOOSAN CIPTA BUSANA JAYA	2012	5,000
8	한인회 부회장	이 호 덕	ROYAL SUMATRA	2012	5,000
9	한인회 부회장	조 용 우	외한은행	2012	5,000
10	상공회의소 부회장	곽 삼 섭	PT. BOSAENG JAYA	2012	3,000
11	상공회의소 부회장	권 희 정	PT. SAMICK INDONESIA	2012	3,000
12	상공회의소 부회장	김 두 련	PT. MIWON	2012	3,000
13	상공회의소 부회장	김 송 정	UNICON INDO MESIN	2012	2,995
14	상공회의소 부회장	김 우 진	PT. SAMINDO ELECTRONICS	2012	3,000
15	상공회의소 부회장	박 병 용	PT. PATRA SK	2012	3,000
16	상공회의소 부회장	배 형 석	PT. NANTOY RESOURCES	11/12	6,000
17	상공회의소 부회장	손 용	PT. CJ INDONESIA	2012	3,000
18	상공회의소 부회장	안 광 진	PT. ERNST&YOUNG INDONESIA	2012	3,000
19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 세 호	DUMI GLOBAL	2012	3,000
20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 완 주	PAN BROTHERS TBK	2012	3,000
21	상공회의소 부회장	장 윤 수	PT. HANSARAM SAKTI	2012	3,000
22	상공회의소 부회장	최 병 우	ANEKA PANEL INDONESIA	2012	3,000
23	상공회의소 사무차장	이 주 한	ROYAL SUMATRA	11/12	2,000
24	자문 위원	김 영 만	KIPCO CO. LTD	2012	1,000
25	자문 위원	김 우 재	PT. KOIN BUMI	2012	1,000
26	자문 위원	박 현 식	PT. DONGAN KREASI INDONESIA	2012	1,000
27	자문 위원	배 상 경	PT. TEBO AGUNG INTERNATIONAL	11/12	2,000
28	자문 위원	양 영 연	PT. BOSUNG INDONESIA	2012	1,000
29	자문 위원	이 진 호	PT. JINYOUNG	2012	1,000
30	자문 위원	이 현 상	PT. ROYAL KORINDAH	2012	1,000
31	이 사	강 주 석	PT. SERIM INDONESIA	2012	1,000
32	이 사	강 호 성	PT. ANUGRAH CIPTA MOULD	2012	1,000
33	이 사	구 자 성	일요신문	2012	1,000
34	이 사	김 경 곤	PT. SUKWANG INDONESIA	2012	1,000
35	이 사	김 경 국	NES	2012	1,000
36	이 사	김 광 현	ASOKA	2012	1,000
37	이 사	김 달 수	KIDECO JAYA AGUNG	10~12	3,000



번 호	직 책	성 명	회 사 명	납입 연도	금 액(\$)
38	이 사	김 문 호	PT. DADA INDONESIA	2012	1,000
39	이 사	김 병 철	PT. MISUNG INDONESIA	2012	1,000
40	이 사	김 상 태	SMS GROUP	2012	1,000
41	이 사	김 성 국	PT. PERTA SAMTAN GAS	2012	1,000
42	이 사	김 영 욱	PT. GAYA INDAH KHARISMA	2012	1,000
43	이 사	김 원 관	PT. GF INDONESIA	2012	980
44	이 사	김 종 현	PT. KOIN BUMI	2012	1,000
45	이 사	김 준 규	PT. CIPTA ORION METAL	2012	1,000
46	이 사	남 상 달	PT. PARKLAND INDONESIA	2012	1,000
47	이 사	노 예 범	PT. SAM PUTRA INTI	2012	1,000
48	이 사	박 성 대	PT. HANJIN INDONESIA	2012	1,000
49	이 사	박 영 수	PT. BENUA ASIA VISION	10~12	3,000
50	이 사	서 영 율	PT. PRATAMA ABADI	2012	1,000
51	이 사	석 웅 치	PT. DAYUP INDO	2012	1,000
52	이 사	송 판 원	PT. KORYEPOLIMER	2012	1,000
53	이 사	안 선 근	UIN UNIVERSITY	2012	1,000
54	이 사	안 흥 제	PT. KOLON INA	2012	1,000
55	이 사	유 주 완	PT. FEEL BUY INDONESIA	2012	1,000
56	이 사	윤 석 환	PT. SUNG SHIN INDONESIA	2012	1,000
57	이 사	이 상 일	PT. U I B	2012	1,000
58	이 사	이 석 태	PT. U F U	2012	1,000
59	이 사	이 승 민	Y S M & PARTNERS	2012	1,000
60	이 사	이 종 역	K A L	2012	1,000
61	이 사	이 준 하	PT. DAELIM INDONESIA	2012	1,000
62	이 사	이 철 훈	PT. INDOBOX UTAMA	2012	1,000
63	이 사	장 주 현	INKO PRIMA UTAMA JAYA	2012	1,000
64	이 사	전 민 식	PT. POWERTECH INDONESIA	2012	1,000
65	이 사	정 주 성	PT. DEASUNG HI-TECH	2012	1,000
66	이 사	조 호 신	SONERGY	2012	1,000
67	이 사	차 상 만	PT. HANKOOK CERAMIC INONESIA	2012	1,000
68	이 사	최 광 수	PT. BIG STAR	2012	1,000
69	이 사	하 연 수	PT. SEOLIN NIAGATAMA	2012	1,000
70	이 사	현 정 규	MEKAR SAMMI JAYA	2012	1,000
71	이 사	홍 기 호	PT. AURORA INT'L CO.	2012	1,000
72	이 사	홍 종 서	PT. DONGEN CHEMICAL	2012	1,000
T O T A L				172,955	

국악사랑단체 사물놀이 증급 강습

단장 장방식 0811 90 2003

2012년도 단원 기량 향상 프로그램으로 10월에 시작한 대금반 강습에 많은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악사랑’ 과 함께 참여하실 유경험자분들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분 : 풍물/사물놀이有경험자
- 교육내용 : 영남, 호남, 웃다리, 아랫다리 가락 및 상모판굿
- 교육시간 : 2012년 11월 27일부터 한 달 간

헤리티지 탐방 참가자 및 자료 번역 봉사자 모집

문의 : 공동회장 이수진 08161300210/ 유남실 081584208949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는 한국인들에게 폭넓은 인도네시아문화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탐방 안내 신청 접수: 김성월 0812 3780 4878

수까부미 2박 3일 11월 24일(토) - 26일(월)

Pelabuhan Ratu /가나안 농군학교/까스뽀한 부족 산골마을

자료 번역봉사자 모집<안내: www.indoweb.org>

인도네시아문화 관련 영어책자 번역 / 번역봉사자에 한하여 Certificate 수여
영어실력 향상도 할 수 있는 보람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우리 투자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P.A.K Lawfirm(김민수 변호사)과 함께 기초적인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문 내 용

- 인도네시아의 무역, 투자관련 법령, 제도 -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세무, 회계 등 법률문제 -

법률자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관 김호일 전문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에 [법률자문] 명기)

대표전화 : (021) 2992-2500

핸드폰 : 0811-183-3164

이메일 : hoilkim10@gmail.com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92 2500
영사과	2992 303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긴급전화

경찰(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 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둥한인회	022 200 6880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브까시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한인회	0298 522 296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7782 886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KOWIN	0812 807 8607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 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 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23 0807
(골라빠가당)	471 8047
(땅그랑)	558 7227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0 5979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65 3077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쥬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ISO 인증

품질 환경 안전보건

문의 573-1576

 **KMAQA**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021-7278-0704 Fax: 021-7278-8330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 4587 8833 Fax: 451-3951
HP: 0812 967 8131
Email: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s@yahoo.co.kr

佳肴 최상의 재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그 이름에 남아 모시겠습니다

佳肴 Gahyo

(021)9127-2262
SCBD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kt
(021)4587-6626
Sport Mall Kelapa Gading Blok A 26-27 Jkt

사무실 인테리어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사무실은
로만인테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OFFICE INTERIOR 전문업체
로만인테리어
HP. 0811-847-699
Tel: (021) 720-4851 Fax: (021) 726-0910
Jl. Laksana II No. 13, Blok S, Kebayoran Baru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가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글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글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퀵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샤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클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향림당한의원	722 1648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精과誠과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 변호사 이소왕 매상 -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n.net.id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카시)	821 8705	대감집	726 4356
무궁화슈퍼	722 2214	돌아온김삿갓	722 2230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동해복집	720 746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또래오래치킨(버카시)	8243 4848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레드토마토(EX몰)	315 1033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뽕독인다)	7592 065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마포	7279 2479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만나	821 5279
우리슈퍼(버카시)	8240 4575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월드마트	8430 2535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하나마트	8459 0064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한일마트	723 2086	물레방아	8990 695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목우촌	450 4155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K-마트	725 2122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위자야마트	726 9049	버카시서울(버카시)	8895 7604
●식당		부산횃집(골라빠가딩)	4585 1156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산들(땅그랑)	5579 5821
가야성	725 7373	산타코리아	722 9921
가호(Sudirman)	9127 2262	싼티카 클래식(버카시)	8459 9282
가호(Kelapa Gading)	4587 6626	상록수	8983 6047
강강수월래	380 521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서라벌	572 3475
강촌(땅그랑)	5579 3681	서울가든	(0361)768 323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서울팔레스	(024) 447 414
고목(찌까랑)	897 3463	소양(찌까랑)	897 2231
고인돌	452 5597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고주몽	7279 6709	송도(리뽕찌까랑)	8990 1474
국일관	822 89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권명회복집	720 7464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기소야	574 7581	시티서울	5289 7506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신도시	897 3615
뉴서울(땅그랑)	546 0845	아랑 22	522 7201
다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끌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안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안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안우스(Hits)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끌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끌라빠가딩)	453	3033
한술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끌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끌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BBQ(끌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프라임투어 (한국어)	0857	1009 3479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한진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26	1326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뽀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자카르타
경제일보**

JAKARTA BIZ DAILY

Petra Jasa Tower 15th Fl. #1501A
Jl. Jend. Gatot Subroto Kav. 32-34, I Jakarta Selatan - INDONESIA
Tel : +62-21 5290-0117 (Hunting) | Fax : +62-21 5290-0229
E-mail : news@jkbizdaily.com

인도네시아 유일의 한국어 경제일간지

자카르타경제일보

구독문의 (021) 5290 0118

이누스컴퓨터 422 9007
인도웹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집

레저게스트하우스(땅그랑) 0811 143 437
썬터하숙 726 8775
일박이일하숙집 424 0953
교민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18 760 747
갈릴리게스트하우스 522 4666
자카르타게스트하우스 724 6347
세명하숙(BL. M) 0856 9226 9933
Full House 0818 901 609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아카데미 722 0686
리 앤 리 725 5008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뽀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보까라와찌) 546 4531
에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학원 7883-5202
토마토미술 720 5194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한인예총(회장 한상재)0811188612
미술협회(이은수) 0821 1414 2244
음악협회(이일하) 0815 1150 6664
어린이합창단(안영수) 0811 900 5639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1433 7187
서예협회(손인식) 0815 9369 114
월화자문화원(정연규) 0818 183 906
색소폰동우회(강희중) 0816 798 221
문인협회(한상재) (0811 188 612)
한바패(장방식) 0811 902 003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민영기) 0815 9717 450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온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379-39452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754 100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생활정보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골)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넷서날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반동 (지역번호 02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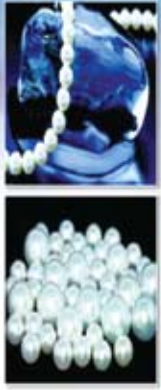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KORINDO P1ants the Green



Green Tomorrow

파푸아 오일팜 농장
Asiki, Papua Indonesia



30년의 선물

이 검은 돌이 주는
놀라운 혜택을 아십니까

수 천 만년 땅 속에 묻혀있던 이 검은 암석들이
KIDECO의 기술로 이 땅으로 나오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사는 도시 구석구석으로
따스한 빛과 열기가 되어 다닙니다.

참으로 긴 세월, 지난 30년-
자원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누빈 사람들, **KIDECO**
우리의 열정과 욕심이 당신의 삶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PT. KIDECO JAYA AGUNG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삶 속에
KIDECO가 함께합니다.

KIDECO는,

동부 말라만тан Pasir에서 생산량규모 세계 5위권의
유연탄광 파시르 광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우량 글로벌 자원개발 전문기업  **PT. KIDECO JAYA AGUNG**



승기가 제안하는 청정원 푸드테라피!

말문이 열리는 칭찬복음밥으로 모녀 사이를 건강하게!

속마음이 전해지는 텔레파시 파스타로 연인 사이를 건강하게!

사랑이 샘솟는 러브러브 북어국으로 부부 사이를 건강하게!

식탁의기적
청정원



KIWOOM

SECURITIES INDONESIA

키움증권 인도네시아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런칭 하였습니다.

이제 모바일에서도 최고의 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With Kiwoom You Are A
HERO
MOBILE TRADING SYSTEM



* 계좌가 없어도 임시 아이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PT KIWOOM SECURITIES INDONESIA
T: 6221-5277806 , F : 6221-5276891
www.kiwoom.co.id

